

文學碩士 學位論文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혼종성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ybridity of the Reception of Korean Popular Culture
-Focusing on the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Busan Region-

指導教授 金泰萬

2008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東亞細亞學科 李 西 貞

本 論 文 을 李 西 眞 의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

위원장 구 모 룡 인

위 원 박 성 수 인

위 원 김 태 만 인

2007 년 12 월 26 일

한 국 해 양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중문초록	iv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이론적 배경	4
1. 이론적 논의	4
2.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9
1. 연구대상	9
2. 연구방법	10
제2장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	11
제1절 중국에서의 한국대중문화 발전 배경	11
1.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중문화의 발전	11
2. 대중문화 발전을 통한 상품수요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11
3.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12
제2절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양상	14
1. 중국에서의 한류 수용형태	14
2. 한류의 ‘문화자본’ 논리	15
3. 한류 수용의 혼종성	19
1) 한류에 대한 저항 : ‘반(反)한류’, ‘혐(嫌)한류’	19
2) 한류의 모방 : ‘협력과 합작’ 또는 ‘흉내내기’	22
(1) 협력과 합작	22
(2) 흉내내기	23
제3장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유학생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25
제1절 부산과의 만남	25
1. 아시아인들의 도시 횡단	25

2. 부산의 지역문화	25
3. 부산과 중국의 국제교류	26
4.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 현황	27
제2절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실태	31
1. 수용시기의 다양성과 적극적인 수용	31
2. 고른 수용 분포와 능동적인 수용	32
제3절 유학 과정의 경험	35
1.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	35
1) 긍정적 영향	35
2) 부정적 영향	36
2. 수용의 혼종화	36
1) 수용의 유형	37
2) 모방과 차용의 수용	38
3.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비교	40
1)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	40
2) 수용의 차이	40
4. 수용 과정에서의 문제와 대안	41
제4절 ‘부산문화’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인식	43
제5절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과 향후 수용에 관한 인식	45
1.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	46
2. 상호 교환적 문화교류	48
제4장 결론	48
제1절 연구의 요약	48
제2절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록1 설문지 (국문)	56
부록2 설문지 (중문)	60

표 목차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통계 빈도표	10
<표 2> 설문조사의 주요 문제	10
<표 3>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28
<표 4>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실태	31
<표 5>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	35
<표 6>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혼종성	37
<표 7> ‘부산문화’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인식	43
<표 8>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과 향후 수용에 관한 인식	45

그림 목차

<그림 1> ‘혐한(嫌韓)’랩 노래를 부른 중국인 남성의 블로그 화면	21
<그림 2> PPMate 실행 화면	33

关于韩国大众文化收容的混种性(Hybridity)研究

-正在釜山地区留学的中国留学生为主-

李 西 真

韩国海洋大学校 大学院 东亚细亚学科

(中文抄录)

本研究的目的是从‘混种性(Hybridity)’的概念出发,从而掌握扩大至东亚的韩国大众文化的收容特性。在文化的世界化过程中,对于韩国大众文化的扩大交流现象,不只是停留于‘文化帝国主义理论’和‘文化接近(Cultural Proximity)’等层面,而是进一步发展,将其视为文化之间的不断沟通和融合过程。同时重视主动收容大众文化的消费者,从而认识到文化间的沟通不是生产者单方面地传达给收容者,而是双方相互的力动关系,按照各自的社会文化脉络而变化着。

本论文以混种过程中可能出现的抵抗和模仿等现象为重点进行了资料的比较,对于现今存在的文化资本理论进行批判的接受。并且为了通过经验对文化混种性进行的研究,以在釜山居留1年以上的中国留学生为对象实施了问卷调查。关于韩国的大众文化收容问题,以釜山地区的中国留学生为对象进行了以下的问题调查。

- 问题1. 韩国的大众文化收容实况如何?
- 问题2. 留学中体验的韩国大众文化经历如何?
- 问题3. 关于‘釜山文化’的认识如何?
- 问题4. 韩国的大众文化魅力和今后的收容性如何?

各分析的结果显示出多样的主体所表现出的文化和文化疏通,以釜山为主的中国留学生对于韩国的大众文化收容,有的指出否定影响和存在的问题,有的对自己的面貌和环境进行比较,他们享受、共感并积极收容及应用其特性。

通过本研究想了解现场所经历的生活内部的文化沟通过程,揭示了随着全球性文化现象而掀起的韩国大众文化的影响力因跨文化民族主义、跨国家和民族而具有成为相互沟通的平台的可能性。并且留学生们的不断的流动会成为今后相互了解文化的基础,如果文化特性随着文化移动的混种性不断相融,就有可能成为相互沟通的平台,而不是强迫性的认识。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점차 전 세계를 무대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가 상호간에 본격적으로 교류되고 문화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 이다. 1990년대 들어서 탈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의 등장으로 인한 정치적 통제의 완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수준의 향상과 소비규모 확대, 아시아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보급 등이 복합되어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졌다¹⁾.

또한 ‘한류(韓流)’는 한국 대중문화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특정 짓는 키워드가 되었다. 한국이라는 ‘지역(local)’에서 생산된 대중문화물이 아시아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전 지구적(global)’현상이 될 수 있다는 세계화의 경험은 누구보다도 먼저 한국인 자신에게 놀라운 충격이었다²⁾.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 시기에는 사회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인 교류가 대체로 제한되어 있었다. 사회적·공간적으로 분리된 집단들 간에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또 교류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³⁾. 시공간을 극복할 필요성, 이와 아울러 공간을 교차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거리의 문화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과 이민, 유학을 통한 문화적 이접현상 속에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는 문화적 소통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활발한 교류는 문화의 국제적 흐름을 서구문화 지배에 의한 전 지구적인 문화의 동질화로 보고 비판해 온 ‘문화제국주의론’⁴⁾과 같은 기존 논의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1) King, R. & Craig, T. J.(Eds), 「Global goes local : Popular culture in Asia」,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 4. 윤경원·나미수,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 청소년들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한국언론학회(2005), p. 6에서 재인용.

2) 김수정·양은경,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수용과 혼종성의 이해」, 『한국어문학보』, 제50권 1호, 한국언론학회(2006), p. 116.

3) 문화적인 교류가 대체로 제한된 이유는 때로는 지리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사실들 때문이기도 했고, 때로는 상호작용을 하는 데 대한 적극적인 저항(중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전쟁과 종교가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유지시킨 중요한 힘이었다.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2004), pp. 51~52.

4) ‘문화제국주의’란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배,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지배, 주변에 대한 중심부의 지배, 빠르게 사라지는 전통세계에 대한 근대세계의 지배, 세계 대다수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자본주의의

없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문화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주변부국가들로 흐르는 것으로 파악하는 해석이 주류였다. 아니면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유교에 근거한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이란 측면에서 설명하여 문화를 단일하고 고유한 본질을 지닌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류 대중문화의 해석을 위해서는 이상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혼종성(Hybridity)’의 개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⁵⁾. 혼종성 개념은 한류 대중문화를 새롭게 이론화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껏 논의된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에 대한 분석 방식이나 인식체계를 새롭게 이론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왕래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지구화의 ‘탈중심화’와 ‘재중심화’의 역학 속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⁶⁾. 한국 대중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대화를 위하여 상호간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도시들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교통(交通)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 유학생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부산지역은 어떠한가? 부산은 지역간의 차별을 없애고 세계적인 국제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환경 또한 강과 바다, 산이 어우러져서 친환경적이며, 역사적으로도 각종 문화재들이 많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부산의 경우 바다와 항구를 통해 수많은 물품과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국제 행사들이 잇달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적, 가치 지향적 미래 비전이나 삶의 질은 세계화와 관련해 날로 그 조건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⁷⁾.

본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이 문화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에 귀국한 후 한국과의 문화적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한·중 양국의 문화소통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화코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용되는 대중문화 흐름의 특징을 ‘문화의 혼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혼종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뒤뜰림과 역동적인 변화 가운데 모순적으로 드러나는 문화자본의 권력구조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문화수용에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생활 내부의 문화적 소통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며, 전지구적 문화현상과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문화

지배 등에 대한 수많은 구체적 담론들을 모은 것이다. 존 톰린슨, 김승현·정영희 옮김, 《세계화와 문화》, 나남(2004), p. 118.

5) 김수정·양은경, 위의 글, p. 116. ‘혼성성’, ‘혼종성’, ‘잡종성’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지만, 이하 ‘혼종성’으로 통일해서 언급할 것이다.

6) 이와부치 고이치,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옮김,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또 하나의 문화(2004), p. 11.

7) 김태만, 「바다를 통한 세계도시 부산」, 김대래 외, 《부산의 이해》, 효민(2006), p. 248.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와 민족을 넘어 상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문화의 전지구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문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람들이 전지구적 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전지구적 문화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displacement)’적인 질서로 간주된다. 동일한 모습을 띠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관계들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의 역사적·언어적·정치적인 상황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원근법적인 구성의 산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⁸⁾. 이러한 문화적 역동성의 강조는 이미 세계화 과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자본의 이동과 정치적인 면 뿐 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서는 변화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강조하여 문화의 흐름을 사람, 기술, 자본, 이미지, 이념 등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중요한 논의이다.

또한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통해 문화가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일상의 삶을 급속하게 변형시킨다⁹⁾.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에 따르면 어떤 영토도 이질적이고 주변적인 코드가 잔존한다. 이 주변적 코드에 의해 탈코드화 혹은 코드의 변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표현 재료가 코드화의 촉매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탈영토화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 때문이다¹⁰⁾.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경험은 어떠한

8) 아파두라이(Appadurai)는 현존하는 전 지구적 경제의 복잡성은 경제·문화·정치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탈구들과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고, 그러한 탈구들을 탐구하는 기초적인 틀은 다음과 같은 전 지구적 문화 흐름의 다섯 가지 차원들 사이의 관계를 탐사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s),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s),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s), 파이낸스케이프(financescapes), 이디오스케이프(ideoscapes)라는 다섯 가지 풍경들의 유동적이고 비규칙적인 모습들을 가리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국제적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특유한 외양을 지시할 수 있게 해준다. 풍경을 공통의 접미사로 갖는 이러한 용어들은 또한 국제적 자본주의의 풍경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모습을 띠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관계들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 -국민국가들과 다민족국가들, 이산된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하위 민족적 집단들과 운동들(종교적·정치적·경제적), 심지어 마을이나 이웃, 가족 등과 같은 치밀한 집단들-의 역사적·언어적·정치적인 상황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원근법적인 구성의 산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아파두라이, 위의 책, pp. 60~61.

9) 그러나 탈영토화가 하나의 선형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세계화 그 자체처럼 변증법적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 의해 특징지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탈영토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성의 종말을 의미할 수는 없고, 더 복합적인 문화적 공간에서의 변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존 톰린슨, 위의 책, pp. 212~213.

영토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탈영토화라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탈영토화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천들은 반드시 한 가지 방향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현재 분산되고 균열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같은 논의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지리적인 경계를 느슨하게 풀어준다. 그리하여 공간이 이동하고, 사람이 이동하며, 미디어도 이동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고, 또한 그 관계를 좀더 광범위하게 확장시킨다.

이처럼 탈구의 개념, 탈영토화는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재생산적이고, 유동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전지구적인 자본의 권력을 쉽게 지나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을 낳기도 한다. 전지구적인 각 풍경의 운동을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구조적 관계를 이론화하지 않기 때문에 초국가적 권력의 배치로부터 소홀해 질 수 있으며¹¹⁾, 전지구적 문화자본의 공세에 대응해 얼마나 자생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¹²⁾고 지적된다.

이러한 전지구적 문화의 흐름을 ‘문화의 혼종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혼종’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이중성·경계성·중간성을 중요시하며, 배타적 ‘상상의 공동체’나 문화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강조하는 본질주의나 민족 절대주의 등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탈식민 담론에서 발전되어 왔다¹³⁾. 대표적으로 바바(Bhabha)는 식민자의 담론/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나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의 미끄러지고 섞이는 혼성성을 논의하였다¹⁴⁾. 이에 반해 칸클리니(Canclini)는 다양한 계기들의 새로운 접합과 전환을 강조한다. 문화적·담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서구적 근대성 속에서 전통, 문화적 모더니즘, 사회경제적 근대화 사이의 관계들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이해하는 열쇠를

10) Gilles Deleuze/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Brain Massumi 옮김,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1987), p.323. 박성수, 《영화·이미지·이론》, 문화과학사(1999), p. 104에서 재인용.

11) 강상중·요시미 순야, 임성모·김경원 옮김,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2004), p. 48.

12) 이동연은 문화자본의 침투와 문화상품의 국제협정, 제3세계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미국 대중 문화의 상징적인 힘은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 (2006), p. 33.

13) 호미 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2002). 이와부치 고이치, 위의 책, p. 67에서 재인용.

14) 호미 바바의 이 같은 논의는 권력의 시선으로부터 이탈하는 틈새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정형화, 모방, (피식민자의)교활한 교양 등 서구의 권력/담론의 혼성성에 의한 작용을 설명한다. 또한 모방이란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문명을 받아들여 흉내내는 것을 말하며, 모방의 반복은 서구의 이식이 아니라 서구문명과 ‘교섭’하는 ‘혼성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교섭이란 서구 문명이 이질적인 장소에서 다시 쓰여 지면서 상호텍스트적으로 혼성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바바는 이러한 교섭과 혼성화의 과정이 피식민자의 문화의 위치이며 그런 역동성 속에 저항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호미 바바, 위의 책, pp. 16~17.

이야기했다¹⁵⁾.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다양한 문화의 경험으로 인해 문화의 혼종화와 차이점에 대해서 모든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기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교환과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타문화를 수용할 때 수용주체들의 능동적 기능은 무시되거나 억압되기 일췌였다. 혼종 문화이론은 낯선 문화들과의 접촉을 중심에 두어 외래문화와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그것은 단순히 외래문화를 이식(Transplan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의 문화적 역량과 주체적 능력에 따라 그것을 재전환하고 재가공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또한 이것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관점은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여 생산에 우선성을 두고 소비에는 항상 부차적인 역할만 부여하였다. 생산과 소비의 이와 같은 분리는 중심부는 생산을 담당하고 주변부는 그것을 소비만 한다는 문화적 지배와 종속의 논리를 되풀이한다. 혼종문화는 생산과 소비 간의 역동적 관계, 즉 소비가 갖는 생산적 성격과 생산적 소비와 소비적 생산간 역동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하나, 오늘날 혼종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초국적 자본들이다. 그러한 지배로부터 탈영토화하여 그 힘을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한다¹⁶⁾.

다시 말해서 문화의 혼종개념은 자신과 타자, 식민자와 피식민자, 다문화주의 개념에서 흔히 무비판적으로 상정되는 문화적 다양성 등 국가나 문화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분하려는 여러 이분법적 구도들을 넘어서는 더 복잡한 과정을 말한다¹⁷⁾.

이러한 세계화의 맥락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인 ‘한류(韓流)’는 문화의 혼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화를 동일하게 만드는 중심-주변의 논리에서는 벗어나는 반면, 여전히 문화산업적인 자본의 논리에서 유통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류의 콘텐츠가 창의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며, 미국과 일본식 스타일을 ‘흉내내기’도 한다는 면에서 비판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해외시장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국 대중문화

15) “같은 커피 테이블에 토착공예품과 전위예술의 목록들이 나란히 놓여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콜럼버스 이전이나 식민 시대의 이미지들을 오늘날의 산업 이미지와 나란히 인유하거나 컴퓨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그것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때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전자매체가 고급문화와 토속문화를 대체할 것이라 법석이지만 오히려 그 문화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매체다. 메트로폴리스에서 록과 고전음악이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민중적 멜로디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 Canclini, Nesto Garcio, 《Hybrid Culture: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U of Minnesota P.(1995). 김용규, 「문화연구의 전환과 잡종문화론」, 『영미문화』, 제5권 2호, 한국영미문화학회(2005), p. 180에서 재인용.

16) 김용규, 위의 글, pp. 182~184.

17) 이와부치 고이치, 위의 책, p. 67.

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수용층이 가지는 문화혼종 경험의 맥락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문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한류를 동아시아가 겪는 다양한 문화의 변화과정으로써 ‘초문화화’ 현상이라고 인식하거나¹⁸⁾, 한류가 서양과 미국 중심의 전지구적 문화에서 ‘탈서구화’의 아시아 문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이해와 공생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¹⁹⁾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류에 대해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시했던 연구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한류를 국경을 넘는 문화의 ‘혼종성’ 형태로 파악하는 논의의 초읽기는 조한혜정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²⁰⁾. 또한 일본 연구자 이와부치 고이치의 연구도 중요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²¹⁾. 이 같은 논의들은 동아시아에서의 문화흐름에 대해 일국차원의 전달과정이 아니라 뒤섞이는 혼종과정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한류에 대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적 우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대중문화 텍스트와 그 수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혼종성’ 개념을 적용한 연구는 초국적 문화 흐름에서 혼종적 문화 실천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권력 관계들과

18) 조한혜정은 「동/서양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글로벌 지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열풍」, 『한국 문화일류학』, 제35권 1호, 한국문화일류학회(2002)에서 한류열풍 현상은 단순한 ‘문화접변’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로 논의되어야 할 현상이라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과 미디어의 이동, 사람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초문화화’현상의 일부이자 ‘권력재편’의 과정으로 파악될 현상이라고 말한다.

19) 김태만은 「韓流의 정치학 -地域 文化公共網 구축을 위해-」, 『중국어문학』, 제44권, 영남중국어 문학회(2004)에서 한류 현상에 대해 중국이라는 일국적 차원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정체성의 탈구서구화에 따른 다양화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동아시아에 과급되고 있는 한류현상 자체에 내재하는 ‘아류 제국주의’ 성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문화적 공감과 문화적 공동번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문화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공간의 공존과 상생을 기초로 하는 상호소통의 ‘지역문화 공공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20) 조한혜정은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2003)의 서문에서 ‘한류’의 문화현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소비되었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현상이지만, 이미 1990년부터 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흐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한류’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의 젊은 층에서 소비되는 대중문화는 자국 문화와 서구 문화, 또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혼성’의 형태로 각 지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뒤섞이고 엇갈리면서 새로운 현대성을 창출해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다.”

21) 아시아 지역의 문화 왕래를 전지구화의 탈중심화와 재중심화의 역학에서 살펴봐야 하며, 일본의 대중문화를 상업화된 문화적 혼성적인 맥락으로 분석한다. 이와부치 고이치, 위의 책을 참고하시오.

접합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한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혼종적 특성을 지녔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혼종성에 대한 찬양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권력 지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²²⁾.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는 TV 드라마, 영화, 가요 등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연구²³⁾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류 수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²⁴⁾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껏 이루어진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는 그 수용양상에 대한 현상 분석과 한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상호간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자하는 방향성으로 써의 연구에 그친다. 또한 문화자본과의 연결을 통해 한류의 경제적인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고, 이러한 연구들은 비판적으로 한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논의들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혼종화 과정에서 겪는 소통과 뒤엎힘을 살펴보고, 문화의 혼종성 내부의 권력작용에 대한 비판연구에 문제의식을 같이하여,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용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2) 김수정·양은경, 위의 글을 참고하시오. 이동연, 위의 책에서도 ‘한류’의 문제들을 문화민족주의와 문화혼종화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23) 전반적인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논의는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열풍고찰」, 『문학과 영상』, 제3권 2호, 문학과 영상학회(2002)와 김설화, 「중국의 ‘한류’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북경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2002)과 한홍석, 「중국 대중문화 시장의 형성과 외국 대중문화의 수용: ‘한류’발생의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중국은 왜 한류를 수용하나』, 학교방(2004) 등이 있다.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논의는 허진, 「중국의 ‘한류’현상과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6권 1호, 한국방송학회(2002)와 곽수경, 「중국의 한국드라마와 한류스타 현상」, 『중국연구』, 제3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2005)와 유세경·고민경, 「한국 TV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6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06)와 김경훈, 「중국에서의 한류 변화 양상 연구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교 한국학』, 제15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2007) 등이 있다. 가요 수용에 관한 논의는 이인구, 교신저자 김종배·오재환, 「가요한류에 주는 요인에 관한 중·일간 비교연구」, 『서비스 경영학회지』, 제8권, 한국서비스경영학회(2007) 등이 있다.

24) 이병환은 「중국대학생의 “한류”인식 실태와 그 의미」, 『중등교육 연구』, 제53권 3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2005)에서 한류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여, 중국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한류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김선남은 「중국인 대학생의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제14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2007)에서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드라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주관성에 대해 규명하였다.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중국 대학생의 시청형태를 3가지 형태로 도출하였고, 이러한 분석은 한류가 단지 하나의 문화형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미디어 환경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제3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현지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범위가 넓고, 기회가 많으므로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중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의 인식과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인식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에 있는 어학당 과정생과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그 대상을 국한시킨 것은 청소년 계층에 비해서 어느 정도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갈수록 부산에 있는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산문화’의 특성 또한 혼종적이며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거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정하였는데 거류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라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수용하는 정도와 범위도 다양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 자기 기입식(self administrated survey) 면접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한국해양대학교 내의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기숙사와 학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조사되었다. 부산에 있는 대학 중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신라대학교에서도 대외협력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과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영로교회에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종교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41명의 응답지 중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11부를 뺀 총 230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빈도는 아래의 <표 1>와 같다.

인구통계변수	유형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12	48.7
	여성	118	51.3
	합계	230	100.0
부산 거주기간	1년	96	41.7
	1년~2년	70	30.4
	2년~3년	39	17.0
	3년~4년	17	7.4
	4년 이상	8	3.5
	합계	230	100.0

교육수준	어학당 과정생	35	15.2
	대학생	130	56.5
	대학원생(석사과정)	56	24.3
	대학원생(박사과정)	9	3.9
	합계	230	100.0
한달평균 생활비	30만원 미만	87	37.8
	30만원 정도	95	41.3
	50만원 정도	36	15.7
	50만원 이상	12	5.2
	합계	230	10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빈도표

2. 연구방법

설문지는 먼저 연구자가 한국어로 작성하였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번역을 부탁하였다. 본 설문지 기간은 2007년 9월 30일에서 10월 10일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 소프트웨어의 종류 중 사회 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 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총 21개이다. 1번부터 17번까지 각 항목별로 연구문제를 4개 설정하였고, 18~21번까지의 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한 것이다. 주요 세부 문제는 다음 <표 2>과 같다.

- | |
|---|
| <p>문제 1.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 실태는 어떠한가?</p> <p>문제 2. 유학 중 한국의 대중문화 경험은 어떠한가?</p> <p>문제 3. ‘부산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p> <p>문제 4. 한국의 대중문화의 매력과 향후 수용은 어떠한가?</p> |
|---|

<표 2> 설문조사의 주요 문제

제2장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

제1절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발전 배경

1.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중문화의 발전

중국에서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개혁·개방이라는 커다란 변화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격한 대중문화 발전은 시장의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시장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주류 문화와 지식인 문화와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주류문화는 국가의 정통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문화이며, 느슨해진 이데올로기 환경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형태에 일정정도 조응하는 것이지만, 세속문화의 비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애매한 태도이기도 하다. 한편 지식인 문화는 한때 문화의 중심에 위치했었지만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다른 문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독립성을 나타내려고 하였고, 시장문화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시장문화는 거대한 해체력, 감염력, 흡인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속화 과정에서 모든 권위를 상실하여 다른 세계와 인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장문화는 형성된 시점에서부터 엘리트 문화와 주류문화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²⁵⁾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전에 이데올로기로서 큰 작용을 했던 대중문화가 문화 시장의 충격과 함께 ‘문화 산업’으로서 발전하였고²⁶⁾, 정부의 정책에 의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접하게 되는 대중문화의 종류와 선택의 여지가 늘어났다. 이러한 개혁·개방의 배경 아래 중국의 대중문화는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대중문화 발전을 통한 상품수요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더욱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25) 명관화(孟繁華), 김태만·이종민 옮김,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 예담(2002)에서는 1990년대 중국의 문화형태를 ‘주류문화’, ‘지식인 문화’, ‘시장문화’로 나누고, 이 세 가지 문화 형태가 서로 융합하고 충돌하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얽혀있다고 말한다. 오늘날은 문화충돌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비판의 목소리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26) 중국 정부는 장기간 대중문화 분야를 ‘문화산업’이 아니라 ‘문화사업’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개혁 전 산업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상업적 이미지를 기피하였고 둘째, 문화예술 분야를 경제산업과 동일시 할 필요가 없었으며 셋째, 개혁 전 문화예술 분야는 이데올로기적인 수요 때문에 정부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무료로 대중문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종의 ‘공익사업’에 속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한홍석, 「중국문화산업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 『현대중국학회』, 제 6집 2호, 현대중국연구(2004), pp. 195~196.

있다. 특히 중국에서 주5일 근무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문화예술 상품에 대한 대중수요가 급증하였다. 컬러 TV의 본격적인 보급과 케이블TV, 위성TV의 급속한 발전, VCD와 DVD 및 컴퓨터 보유가정의 급속한 확대도 대중수요를 확대하고 다양화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90년대 이후 대중문화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자연적으로 외국 대중문화 상품에 눈을 돌리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이 중국에서 유행한 ‘한류’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도 중국 국내 문화예술 작품의 공급부족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경제성장으로 인해 상품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점차 부(富)를 추구하게 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상생활 가운데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비하게 되는 배경으로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황을 보았을 때, 중국에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그 문화적 틈새를 파고들어 한류의 대중문화가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중문화 발전은 일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가치관과 소비취향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한류의 소비 배경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중국에서의 대중문화 발전은 자국의 대학생들에게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들이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대중문화가 현대 중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일부이다.

대중문화는 어떠한 사상관념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로 침투하는 행위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침투를 통해 사람들에게 특히, 대학생 집단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주는 영향에 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개혁·개방이후에 청년세대로 성장하였고, 그들의 생활은 상대적인 자유와 관용의 사회적 환경이었으며, 한층 더 세속과 자유를 존중하였다.

대중문화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고, 적극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이중성이 병존한다. 대중문화가 이 시대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에게 신중한 사유를 할 수 있게 하고, 문화적 가치관 형성을 조성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풍부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가치심리 형성을 도와준다. 셋째, 매체를 통한 새로운 사상이 대학생들의 가치관을 더 새롭게 발전되도록 촉진시킨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문화는 주류문화와의 충돌을 야기하고, 사람들의 이상사회, 인생의 의미, 민족정신, 전통도덕이 대중문화에 젖어들어 모호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희미해진

27) 한홍석, 위의 글, pp. 211~212.

다. 둘째, 대중문화는 시대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류사상과 사회생활 사이의 충돌을 일으키며, 대학생들의 가치심리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가치목적, 가치표준과 가치방향도 뒤흔든다. 셋째, 대중문화는 현대 매스미디어를 매체로 삼고 있으며, 시·공간의 강제 점유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고유한 문화 규제성을 부정하지만 새로운 문화 규칙성을 형성하기도 한다.²⁸⁾

위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대중문화 발전은 중국 대학생에게 긍정적·부정적 작용을 했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대중문화를 통해 대학생들이 오락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대중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국가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행에 민감하고,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기성세대들의 보수적인 취향과는 다르게 개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 曾汉君, 「试论大众文化对当代大学生价值观的影响」, 『南方医学教育』, 4期, pp. 15~17(2006); 大众文化… 不仅以某种思想观念、行为方式渗透于社会, 而且, 通过这种渗透, 对人们, 特别是当代大学生群体的价值观形成产生着不可忽视的影响。当代的大学生是改革开放后成长起来的一代青年, 他们生活在一个相对自由和宽容的社会环境中, 更为崇尚世俗与自由。… 大众文化对当代大学生价值观的影响兼容了积极与消极并存的二重性。大众文化对当代大学生价值观的正向影响主要体现在以下几个方面: 开拓大学生的审慎思维, 营造大学生价值观形成的文化气氛。丰富大学生的业余生活, 帮助大学生形成健康的价值心理。通过传播新思想来推动大学生价值观的更新和发展。…其消极、负面的影响主要表现在如下方面: 大众文化不仅对主流文化造成冲击, 人们意识中的社会理想、人生意义、民族精神、传统道德在大众文化的浸渍下也变得相当模糊乃至淡化, 大众文化是时代的产物, 它对主流思想、社会生活的冲击引起了大学生价值心理的急剧变化, 使得大学生的价值目标、价值标准和价值取向也在社会震荡中摇摆。大众文化由于以现代传媒为载体, 对大众文化生活具有时空的强制占有性, 虽然否定了原有的文化控制权, 但是又形成了新的大众文化自己的文化控制权。

제2절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양상

1. 중국에서의 한류 수용형태

중국의 한류 현상은 한국의 TV드라마와 가요 등이 중국의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생겨난 일종의 문화적 반향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인구 및 문화의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류의 경우는 인구의 이동, 즉 이민, 유학생, 여행객, 국경 이주민 이동의 증가와 함께 문화요소들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는 데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흐름이 아니라 소위 주변국가간의 흐름이라는데 그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³⁰⁾.

20세기 중국에서 한국, 특히 한국문화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중국에 있는 200만의 조선족과 북한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이른바 한반도의 전통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전통과 현대적인 정서가 아우러진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서울올림픽 실황중계를 TV를 통해 보면서 처음으로 접했다고 할 수 있겠다³¹⁾.

그러던 것이 1997년 CC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시작으로 <토마토>, <가을동화> 등 2000년 이전에 이미 24편 이상의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드라마의 경우 2007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풀하우스>,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애편지>, <X-MAN>과 같은 오락프로그램도 더빙이 아닌 중국어자막으로 방송되었지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의외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오락과 게임이 함께 어우러져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³²⁾.

가요 한류의 수용 형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 클론의 <콩따리 샤바라>가 <유쾌한 지침(快乐指南)>으로 번안되어, 중국가수 쑤웨(孙悦)가 불러 히트했고, 한국 음반이 중국에서 처음 발매된 것은 1998년 H.O.T의 음반이었다³³⁾. 2007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수 비, 동방신

29) 허진, 「중국의 한류현상과 한국의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부』, 제16권 1호, 한국방송학회(2002), p. 500.

30) 조혜영,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2호, 한국교육사회학회(2003), p. 212.

31) 김설화, 「중국의 '한류' 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북경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2002), p. 27.

32) 윤재식, 「2007 상반기 방송한류 현황 분석」, 『KBI포커스』, 제7권 13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7), pp. 5~11.

33)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문학과 영상학회, 제3권 2호(2002), p. 37.

기, 슈퍼유니어, 신화, 강타, 장나라 등 한국 가수들의 공연은 지속적으로 중국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다³⁴⁾. 한국의 신세대 가수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이끄는 이유는 그들의 의상뿐만 아니라 열정과 활력으로 가득 찬 그들의 패기 넘치는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신세대 팬들이 한국 가수의 노래를 ‘경가(劲歌, 즉 호방하고 힘찬 노래라는 뜻)’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 젊은 팬들이 한국 신세대 가수의 노래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³⁵⁾.

한편 한국의 사이버 게임 역시 중국의 사이버 게임시장을 독점했다. 중국전자소식산업발전연구원(CCID)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한국에서 수입한 게임은 중국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고, 2003년도에는 50% 이상을 차지했다³⁶⁾.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 ‘싸이월드(<http://www.cyworld.com>)’는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로 진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2005년 6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오픈하였다. 현재, MP3 파일의 공유 네트워크가 댄스뮤직의 선봉장이 되고, TV 드라마 동영상의 공유사이트 존재가 오프라인의 한류열풍 이면에 존재한다³⁷⁾.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신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코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더러 중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각각의 대중문화물에 대한 유행의 형태도 갈수록 그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한류의 ‘문화자본’ 논리

한류를 둘러싼 국내의 논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입장을 보면, 첫째는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한 우려와 탄식이고, 둘째는 우리 민족 문화의 수준에 대한 확신에 애국주의가 보태어져 드러나는 문화민족주의적 자신이다. 결국, 한류를 문화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의 논리 틀 속에서 한류를 바라보면 결국 “문화=돈”이라는 등식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고,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류는 애국주의와 결합되어 민족문화 우월주의로 귀결되기 십상³⁸⁾이라는 지적을 쉽게 간과할 수는 없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34) 윤재식, 위의 글, p. 11.

35) 명관화(孟繁華), 「동북아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인간상과 인간관」, 《인문학을 통한 동북아 대중문화의 성찰》, 제3회 동북아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년 10월 26일, p. 96.

36) 한국电子网络游戏产品(cybergame)几乎垄断了中国电子游戏市场。据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CCID)提供的数据, 2001年和2002年, 从韩国进口的电子游戏产品占中国市场份额超过70%, 2003年也占近50%。詹小洪, 「"韩流"文化盛行于中国及其原因」, 当代韩国, 中国社会科学院, (2007), p. 69.

37)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제28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07), pp. 214~218.

커지고 있지만, 일방향적인 문화지배의 논리는 자본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의식 또한 문화민족주의적 시각이 존재한다면 진정한 상호이해와는 멀어지는 길일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은 문화의 세계화 과정과 자본에 의한 논리를 검토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류의 문화자본은 대중음악을 포함해서 드라마, 영화, 캐릭터, 게임과 같은 문화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형성될 뿐 아니라, ‘스타덤과 팬덤’ 같은 문화현상과 음식·관광·패션과 같은 일상의 라이프스타일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 한류를 소비하는 마니아들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일부 저개발국가에서는 대중문화의 상징적 지배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른바 한국이 문화적·경제적 모방국가로 신화화되기도 한다³⁹⁾. 한류의 인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스타에 대한 각종 연예계 보도를 접하게 되면 항상 ‘해외진출’과 ‘한류스타’라는 수식어가 뒤따르기도 한다.

각종 문화자본의 논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국의 음반 산업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최근 그룹 슈퍼주니어가 중국인 멤버 영입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일부 팬 사이에 갈등이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이다.

갈등은 중국계 헨리를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추가하려는 SM쪽의 의견 때문이다. SM쪽은 슈퍼주니어에 ‘아시아 스타 등용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국내 스타는 물론이고 이미 슈퍼주니어 멤버 가운데 중국인 한경이 들어간 것도 슈퍼주니어라는 스타시스템을 범 아시아적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이러한 스타시스템은 한국을 뛰어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중국인 바이올리니스트 헨리를 기반으로 한 ‘슈퍼주니어 차이나’가 그 구체적인 시도이다⁴⁰⁾.

그룹 슈퍼주니어는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일본의 아이돌 그룹의 모방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것은 슈퍼주니어의 기획사 SM의 경영방식이 일본의 ‘자니스’ 기획사의 대표적 아이돌 시스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에 설립한 SM은 H.O.T 라는 그룹을 선보였다. 또한 중국인 헨리가 멤버로 활동할 ‘슈퍼주니어 차이나’는 2008년 초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중국인 멤버 한경과 헨리를 주축으로 슈퍼주니어 멤버 일부와 함께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⁴¹⁾. 하지만 기획사와 슈퍼주니어의 팬들이 마찰을 빚게 된

38) 김태만, 「한류: 관용의 문화학」, 『국제학논총』, 제10집, 계명대학교 국제학 연구소(2006), p. 1.

39) 이동연, 위의 책, p. 183.

40) 이균성, 「‘슈주’ 숫자갈등이 가요계에 주는 의미」, 조이뉴스 24, 2007년 10월 24일, 출처: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290417)

41) 자니스는 일본의 대표적 아이돌 그룹인 ‘SMAP’, ‘소녀대’, ‘V6’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을 배출하였다. 또한 자니스에는 ‘자니스 주니어’라는 시스템이 있다. 자니스 주니어는 자니스 기획사의 연습생들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기존 인기가수의 백댄서 등으로 활동하다가 기획사가 새로운 그룹을 꾸리게 되면 그 그룹의 컨셉에 맞는 자리로 들어가 아이돌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SM연습생’ 역시 자니

이유는 슈퍼주니어 차이나를 결성할 경우 기존 멤버 13명의 슈퍼주니어를 좋아했던 팬들이 “슈퍼주니어가 이러다가 100명으로 늘어나겠다”, “차라리 새로운 그룹을 만들라”면서 항의하게 된 것이다⁴²⁾. 이는 다른 국적의 멤버가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민족주의의 측면이 아니라⁴³⁾ 프로젝트 그룹을 반대하는 것이며, 기획사의 상술에 스타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SM 측에서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여 만든 그룹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갈수록 활발하게 국경을 넘는 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아이돌 시스템이 중국에서 SM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고, 상업적인 가치만을 창조하는 것은 중국 현지에서의 문화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자본’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의 필요성을 가진다. 사실상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에서 성공한 인기 그룹 멤버라는 사실은 중국의 신세대들에게 슈퍼주니어가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래 기사는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과 또 다른 한국인 멤버 시원이 함께 중국의 유명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기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과 시원이 중국 오락프로그램 <쾌락대본영(快乐大本营)>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아 중국을 방문했다. <쾌락대본영>은 매주 토요일 60분간 방영되는 호남위성 TV의 간판 버라이어티쇼로, 방송 10주년을 기념해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과 시원을 초청, 두 사람에게 이례적으로 60분 전체를 할애하며 특집 방송으로 편성하는 열의를 보였다. 또한 방송 녹화에 앞서 중국 장사에 위치한 호남위성 TV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대공보(大公报), 중신사(中新社), 소후닷컴(<http://www.sohu.com>) 등 중국 40여 매체,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으며, 두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몰린 수많은 취재진에 의해 취재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쾌락대본영> 녹화에서 한경과 시원은 함께 준비한 댄스 퍼포먼스를 비롯해 한경은 힙합과 민속무용을, 시원은 태권도 격파를 선보였으며, 한경이 한국노래 ‘비처럼 음악처럼’을 부르자, 시원이 범일신(范逸臣)의 노래 ‘나를 사랑하나요?(你爱我吗?)’를 즉석에서 불러 800명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추첨을 통해 무료로 배부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방청권은 슈퍼주니어의 인기로 인해 25만원을 호가하는 금액으로 거래되어 화제가 되었다⁴⁴⁾.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 멤버 한경을 통해 슈퍼주니어가 중국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성

스 주니어와 같은 길을 걷는다. 박재덕·최성진, 「한국의 아이돌 그룹, 日모방단계 넘어서나」, 조이뉴스 24, 2007년 10월 23일.

출처: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290046)

42) 이러한 조짐은 중국인 멤버 영입에 관한 기사가 나간 뒤 슈퍼주니어의 팬카페에 올려진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다음 카페는 ‘천희룡(<http://cafe.daum.net/secondemugame>)’, ‘은세미로(<http://cafe.daum.net/manful24>)’ 등이 있다.

43) 기존 슈퍼주니어의 멤버 가운데 1명은 중국인(한경)이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44) 이양애, 「‘슈주’ 한경-시원, 中 ‘쾌락대본영’ 출연」, EPG 스타뉴스, 2007년 08월 10일, 출처: (http://epg.epg.co.kr/star/news/view.asp?actor_id=13176&cnt=1&npage=1)

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료로 배부된 방청권이 고가에 팔렸다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한국의 가수가 중국의 오락 프로그램에 출현해 인기를 얻는 것과는 또 다르게 상업적으로 악용되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중국인들은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한국 텔런트나 배우에게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는 반드시 한류의 효과만으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한류가 광고효과나 시너지 효과를 낳는 것만은 틀림없다⁴⁵⁾. 다음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한류는 한국 화장품의 판매를 도와주었다. <겨울연가>의 상영에 따라 중국의 여성 시청자들이 여주인공 최지우를 좋아하여, 그녀가 사용하는 한국화장품도 좋아하게 되었다. 2003년 한국 화장품의 수출은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 중 1,695만 달러가 중국에 수출되었고, 중국은 한국화장품의 제1위 수출국이다. ...한류는 성형업을 대동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한류 영화와 TV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한국 정형외과의 명성이 일시에 높아졌다. 한국 신문의 보도에서 상하이로 예로 들었다. 6명의 한국 정형외과 의사들이 상하이에 첨단시설을 갖춘 정형외과를 개업하고, 현지에 한류 스타들의 용모에 대한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 쌍꺼풀 수술비용은 한화로 100만원(7,500元), 안면윤곽수술은 390만원(약 3万元)이고, 이것은 상하이 현지 의원 수술비 가격의 2배이다. ... 또한 한류는 한국 복장과 음식도 수출하였다. <대장금>이 중국에 방영된 후 한국의 음식과 의약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다. ... 그밖에, 한국의 가전제품,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등 IT상품이 잘 팔렸다⁴⁶⁾.

중국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킨 핵심 소비자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도시 신흥부유층 자녀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신흥부유층의 자녀들은 가족계획 이후 출생한 세대로 부모들의 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애정은 이들을 '소황제(小皇帝)로 만들었다.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궁핍과 개성의 억압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리도록 해주려 하므로, 중국 오렌지족의 고소비 풍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흥 부유층 자녀들의

45)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산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중고 자동차, 휴대폰 등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중에는 한류로 인기를 얻은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쓴 제품들도 많았다. 현지의 자국 회사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소유 기업들도 한국 모델을 쓰기도 하였다. 중국에는 한국 패션이 인기를 끌어 한국산 패션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진출이 이어지고, 2001년에는 한국 패션전문 케이블 TV로부터 제공받은 한국 패션쇼 프로그램을 100여개 이상의 중국 방송국이 방영하기도 했다. 한국 패션의 인기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화장법, 악세서리 등에 대한 인기로 이어졌다. 베이징과 충칭에는 각각 6층씩의 백화점이 개장하여 한국산 의류, 악세서리, 잡화, 전자, 화장품 등 모두 한국제품만 취급하고 있다. 신윤환, 「동아시아의 한류(韓流)를 보는 눈 : 담론과 실제」, 신윤환·이한우 외, 《동아시아의 한류》, 전예원(2006), pp. 17~18.

46) "韩流" 帮韩国化妆品消售。随着<冬季恋歌>上映, 中国女性观众喜爱女主角崔智友, 爱屋及乌, 因而也喜欢使用的韩国化妆品。2003年, 韩国化妆品出口首次突破1亿美元。其中有1695万美元是出口到中国, 居韩国化妆品出口第1位。... "韩流"带动整容业。近几年, 借助韩流影视剧的影响, 韩国整形外科声名鹊起。韩国报纸报道了上海的一个例子。六位韩国整形外科医生在上海开办了一家拥有高端设备的整形外科医院, 在当地掀起打造韩流明星容颜的热潮。做一个双眼皮手术费要100万韩币(合人民币7500元), 面部轮廓形手术费390万韩币(约3万元人民币), 是上海当地医院手术费价格的两倍。... "韩流"带动了韩国服装的饭食业的出口。<大长今>在中国内地, 韩国的膳食的医药产品开始热销。... 别外, 韩流影视剧还带动了韩国家电、飞车、手机、电脑等IT产品的热销。 詹小洪, p. 69.

유행문화는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세련됨의 상징으로 보이고 모방해야 할 모델문화가 되기도 한다. 중국 신세대는 한국 풍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소비취향을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한국 대중문화 모방, 한국음악 여행, 한국계 의류와 전자제품(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CD플레이어 등)의 소비는 부와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오렌지족’ 문화가 경제적 부를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했듯이,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는 부유층 자녀들의 문화적 욕망을 표출하는 하나의 출구라 할 수 있다⁴⁷⁾.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수용자들에게 인기를 끈 이유는 중국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문화자본의 논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곧바로 자본과 연결되어 과급효과를 생산하고, 경제적인 창출을 목표로 중국 내에서 다시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 간 이동과 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갈등과 지배의 심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문화의 세계화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는 획일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격은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한류수용의 혼종성

1) 한류에 대한 저항 : ‘반(反)한류’, ‘혐(嫌)한류’

최근 단기간에 걸친 한국드라마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과급효과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에서는 한국드라마 등 외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자국 영상물의 발전과 보호를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프라임 타임 대 외화방영 금지’, ‘심의기준 강화’, ‘외화 연간 쿼터’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놓았다⁴⁸⁾. 게다가 한국 TV 프로그램의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져 재방송 횟수가 많아졌고, 중국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반(反)한류 혹은 혐(嫌)한류라고 칭하는 한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생겨났다⁴⁹⁾.

중국 당국에서의 대대적인 규제는 한국과 중국간의 드라마 유통에서 있어서 한국 위주의 일방적인 유통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간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 역시 중국에서 규제를 하게

47) 19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이후 시장화, 사유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정보화 정책의 추진으로 IT 산업이 발전하자, 1990년대 후반 민영기업가나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신흥부유층이 형성되었다. 이민자, 「청소년을 파고드는 한류의 매력 : 중국의 한류」, 신윤환·이한우 외, 《동아시아의 한류》, 위의 책, pp. 83~99.

48) 홍용락, 「한국 TV드라마의 중국 내 유통에 관한 연구 -한중 프로그램 유통 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논문(2006). 유세경·고민경, 「한국TV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중국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6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02), p. 55에서 재인용.

49) 유세경·고민경, 위의 글, p. 56.

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나라의 주변문화로서의 한류 현상이 너무 오래 계속되거나, 혹은 중심적인 문화를 뒤엎을 만한 소지가 있을 경우 한류에 대한 반(反)한류 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문제는 한류가 확산되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면서 한국제품의 인기도 현지에서 모두 한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각 업체가 하나의 한국 상품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데 있다.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의 흐름이 일방적이고 쌍방향적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류를 정부에서 더욱 확산시키고 강화시키려고 나섰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가 한류의 전면에 나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상대국에서는 긴장하게 된다. 한류의 주체는 민간에게 맡겨두고 정부에서는 상대국의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류의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국가가 하나의 문화적 흐름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은 놀라우면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래 기사는 중국인의 혐한 감정이 여실히 드러난 혐한랩(嫌韓)Rap이 동영상으로 유포되었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랩은 국내 한 네티즌이 아이디 'demonkay'라는 중국 청년의 블로그에 올려진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 동영상을 편집한 것이 UCC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부산은 온통 종묘조각과 담배중독으로 가득한 쓰레기 정거장', '사리사욕만 위해 핏발을 세운 시장 선거', '서면의 대로에는 할머니와 아줌마들 뿐, 미녀는 전혀 없지' 등의 가사로 보아 이 중국인은 한동안 부산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특히 한국인을 '겉과 속이 다르다', '독선적인 바보', '겉만 화려한 빈털터리들', '안하무인에 독선적'으로 묘사하는 등 한국 비난으로 가득하다⁵¹⁾.

이 혐한랩은 단순히 한국이 싫다는 감정이 아니라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길림성의 22살 청년이 신세대가 즐기는 음악장르 중 하나인 Rap으로 한국인과 한국의 모습을 비판했다는 사실도 특이한 점이다. 또한 중국에서 이 동영상이 유포된다면 중국의 다른 젊은 층이 한국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동영상이 유포되자 한국 네티즌들은 대부분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동영상 아래 달린 댓글에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상 맞는 부분도 있다면서 외국인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이 부끄럽다는 의견도 있었다⁵²⁾. 아래 <그림 1>은 혐한랩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

50) 김상, 「은행나무 침대에서 배용준 난화까지 : 싱가포르의 한류」, 신윤환·이한우 외, 《동아시아의 한류》, 위의 책, pp. 188~189.

51) 고영득, 「“한국인은 개, 中 한국 비하 노래에 네티즌 발끈」, 경향닷컴, 2007년 08월 29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291138441&code=940100)

52) 양혜선, 「“한국인은 개?” 중국인이 만든 혐한랩 논란」, 디시뉴스, 2007년 08월 28일의 기사는 11월 19일까지 조회수가 8,058이며 댓글이 264개 달려있다. 출처: (http://www.dcnnews.in/news_list.php?code=ahh&id=243174&curPage=&s_title=1&s_body=&s_na

이다.



<그림 1> ‘혐한(嫌韓)랩’ 노래를 부른 중국인 남성의 블로그 화면⁵³⁾

기본적으로 ‘자국 문화산업의 보호’에서부터 시작한 중국의 저항은 중국 내 방송 및 연예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경계심 내지는 시기심을 담은 발언들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산 영화 및 TV드라마를 지지하면서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동시에 중국 정부에게는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줄이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⁵⁴⁾.

저항의 단계로서 반한류에 대한 표현은 중국인들의 소비취향이 변하고, 과도한 자본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작용이다. 하지만 한국의 과도한 문화자본의 논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의 동영상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한 감정이 중국정부에서부터 일반인에게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종류와 성격은 매우 다양하지만 너무 제한적인 일부분만이 전달되었다는 점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과거에 한국 위주로 진행되었던 교류의 방향을 반성하게끔 한다. 점차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능동적인 중국의 수용자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지만 오해와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반감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콘텐츠와의 융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 속에 담긴 한국의 모습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e=&s_que=혐한랩&page=1)

53) 김진희, 「‘한국인=개?’ 중국 혐한(嫌韓)랩 논란」,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년 08월 29일. 출처: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708/29/kukinews/v17946555.html>)

54) 윤경우,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체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 22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6), pp. 58~59.

것도 중요하다. 서로간의 협력과 올바른 교류를 한다면 문화도 더불어 발전해 가고 문화의 수용자들도 좀 더 능동적이고 자기발전적으로 대중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2) 한류의 모방 : ‘협력과 합작’ 또는 ‘홍내내기’

(1) 협력과 합작

드라마의 경우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일은 있더라도 중국의 드라마에 한국의 스타가 직접 출연하여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진출한 연예인들이 많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수 겸 배우 장나라는 한국 팬들을 뒤로 하고 중국으로 떠났다. 드라마 <띠아오만 공주(刁蛮公主)>는 2005년 중국 상하이SMG(동방위성 TV) 방영을 시작으로 쓰촨 TV, 장쑤 TV 등에서 방영될 당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장나라를 최고의 한류 스타로 만들었던 작품이다⁵⁵⁾. 또한 초기 가요한류의 스타 강타가 그룹 H.O.T의 해체 후 대만 인기그룹 F4의 바네스와 듀엣을 결성하는 등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최근 강타가 중국의 드라마에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다는 기사 내용도 눈에 띈다.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드라마 출연과 함께 자신의 곡과 같은 소속사 가수의 곡을 함께 홍보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함께 내고 있다.

강타가 출연한 중국 CCTV 특집극 <정가네 여자들 경사났네(丁家有女喜洋洋)>가 국경절 연휴기간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강타는 극중 사고로 기억을 잃은 한국 인기가수 ‘안치췌(安七炫)’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또 드라마의 주제곡은 같은 소속사(SM엔터테인먼트)의 중국 출신 가수 장리인의 ‘Timeness’ 중국어 버전이, 엔딩 테마곡으로는 강타 3집 타이틀 곡 ‘가면’의 중국어 버전이 삽입됐다⁵⁶⁾.

또한 한·중 합작 드라마도 많이 계획되고 있다. 지상파에 이어 케이블 프로그램 채널에서 처음으로 한-중 합작 드라마를 만든다. 비용부터 스태프 참여까지 5대5 비율로 똑같이 나눠서 참여하면서 진정한 합작 드라마를 시도한다⁵⁷⁾고 한다.

최근 중국에서의 제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요의 경우 그룹 신화의 멤버 김동완은 최근 중국의 여가수 허지에(何洁)로부터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이라는 노래를 이달 중순 발표할 앨범에 타이틀곡으로 쓰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김동완은 노래뿐만 아니라 뮤직

55) 중화 TV, 띠아오만 공주 드라마 프로필, 출처:

(http://www.zhtv.co.kr/main/program/drama/dom_1.php)

56) 이정연, 「강타, 中 안방극장 점령...주연 드라마 TV시청률 1위」, 스포츠동아, 2007년 10월 16일.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160277>)

57) 드라마 제목은 <(가제) 형제여 어디있는가>에서 <상하이 브라더스>로 바뀌었다. 김미영, 「케이블채널, 한-중 합작 드라마 만든다」, <한겨레>, 2007년 7월 12일.

비디오도 직접 출연하겠다고 밝혀 한·중 합작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다⁵⁸⁾.

영화도 마찬가지로 한·중 합작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방향이 확대되고 광범위해졌다. 지난 해 중국영화의 총 수입은 57억 3천만 위안(약 7천억 원)이다. 잠자고 있던 중국 대륙을 깨운 일등 공신은 바로 합작영화다. 그러나 대형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지고, 한·중 합작 영화의 편수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것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합작의 ‘꼴’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합작영화들은 중국 대중이 반길 만한 소재나 베스트셀러를 재료로 택하고, 이를 중국 감독이 연출하고, 중국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합작 프로젝트의 경우, 고작해야 현지에서 엑스트라를 구하거나 소품, 의상부문 정도를 지원받는 수준이었다⁵⁹⁾.

한·중 간의 합작과 협력의 방식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달방식을 넘어선 문화 간 상호 이동의 원활함을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더욱더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2) 흥내내기

중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모방의 성격으로써 한국 대중문화 제작의 ‘흥내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를 끈 드라마 중 하나인 <연애편지(情书)>는 신세대 한국 드라마들의 강점을 그대로 답습했다⁶⁰⁾. 또한 중국은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여자의 일생>, <신 결혼시대>, <잘못된 사랑> 등의 자국 가족드라마들을 방영하면서 가정주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⁶¹⁾. 이러한 가족드라마의 기획은 한국의 가족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노란손수건> 등이 인기를 끌면서 ‘벤치마킹’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드라마의 모방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 드라마는 이국적인 생활모습, 아름다운 여 배우와 예술적인 화면을 통해 사회와 인생에 관심을 갖고 농축된 삶의 순결을 나타냈으나, 한국 드라마의 복사판인 중국의 청춘우상극은 졸렬한 모방만이 있다. 또한 깊이가 없는 천박한 얼굴과 교만한 연기는 김희선 등의 연기에 나타나는 진정한 감정과 대조되는 것’⁶²⁾이라고 날

58) 이정혁, 「신화, 김동완 한중합작 프로젝트 통해 中진출」, 스포츠 조선, 2007년 10월 02일.

출처: (<http://sports.chosun.com/news/print.htm?name=/news/entertainment/200710/20071003/7ac76107.htm>)

59) 중국시장을 노크하기 위한 한국영화의 발걸음 또한 많아졌고 또 바빠졌다.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27일 중국 차이나필름그룹과 <탕카>를 공동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쇼박스도 오우삼 감독의 다국적 합작영화 <적벽대전>의 투자자로 참여했음을 알렸고, 태원엔터테인먼트 또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동제작 중인 유덕화, 홍금보 주연의 <삼국지: 용의 부활>의 일부 영상을 공개했다. 나비픽처스는 중국의 베이징나비픽처스, 홍콩의 옥토버필름 등과 함께 로맨틱코미디 <연애편지>의 촬영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신씨네 또한 중국쪽 파트너와 함께 <신월동화>를 준비 중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집결호>는 잘 알려졌다시피, <태극기 휘날리며>의 스태프들이 결합했다. 이영진, 「중국시장 공략 달라져야 한다」, 『씨네 21』, 2007년 10월 23일.

60) 조창완, 「중국의 한류, 그 흐름과 막힘」, 『창작과 비평』, 제110호, 창비(2000), pp. 442~443.

61) 윤재식, 위의 보고서, p. 5.

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모방을 통한 흉내내기 방법은 가요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한류가 뜨거워지자 비판이나 우려의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 한류 주동 음악과 춤을 배우러 유학하는 중국 그룹이 생기기도 했는데 바로 펑윈샤오넨(风云少年)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류에 비해 더 한류답다고 극찬하기도 하고, 한류를 맡아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다⁶³⁾.

한국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면서 한류 스타의 외모에 대한 모방도 성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의 한 여배우가 한국의 톱스타 송혜교처럼 성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보도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가 송혜교와 거의 흡사하게 고쳐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기사를 통해 중화권 연예인들 다수가 국내 연예인들의 외모로 성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의 수많은 연예인들이 성형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쟁위치(张雨绮)는 두 차례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고 난 후 송혜교의 얼굴과 비슷한 지금의 얼굴이 되었다고 한다. 그랜드 성형외과 유상욱 과장은 중화권 연예인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성형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듯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특히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과 최대한 동일한 얼굴로 성형하고자 하는 중화권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국내 연예인의 사진은 이영애, 송혜교, 채림, 최지우 등 국내영화 및 TV 드라마 수출 등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들이 많다. 또한 중화권 남자연예인의 경우도 국내 유명 남자연예인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배우가 장동권, 원빈, 권상우 등“이라고 설명했다⁶⁴⁾.

중화권 지역의 연예인들이 한국의 스타들처럼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외모의 콤플렉스를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흉내내기의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흉내내기 현상은 저항의 성격인 반한류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제작 방식이나 시스템을 흉내내어 배울 점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한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모방을 통해 좋은 점을 답습하고, 내면화하여 재개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한 수용의 방식은 고쳐져야 할 점이다. 더욱이 문화자본의 논리에 의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모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62) 충언(冲言), 「‘한풍(韩风)’이 불고 간 뒤」, <런민르바오(人民日报)>, 베이징저널, 2001년 11월 5일. 이은숙, 위의 글, p. 48에서 재인용.

63) <베이징칭니엔바오(北京青年报)>, 2001년 9월 26일, 이은숙, 위의 글, p. 48에서 재인용.

64) 두정아, 「중국스타들 “한국 연예인처럼 성형해주세요”」, 세계일보, 2007년 10월 17일, 출처: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10181407000058>)

제3장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유학생들의 한국대중문화 수용

제1절 부산과의 만남

1. 아시아인들의 도시 횡단

1980년대까지 아시아 도시들은 냉전의 벽과 현격한 경제 격차로 인해 동시대적인 감수성을 공유하기가 어려웠다.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문화권역의 블록화가 잔존하며, 도시 간 경제적 격차가 확연했던 199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교통했을 뿐, 일상적인 소통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도시들은 점차로 아시아인들의 왕래를 통해 냉전의 그림자를 걷고 문화적으로 권역화한다. 많은 아시아 대중들이 아시아 도시들을 여행, 비즈니스, 유학,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다양하게 왕래하면서 아시아 내 도시 문화들의 특이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글로벌한 아시아의 거대도시들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호 교통하고 있다⁶⁵⁾. 아시아 각각의 도시에서는 과거에 닫혀있던 마음이 점차 열리면서 상호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을 이동하여 각각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과 권력, 제도의 집중은 지역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의 서울 또한 세계체제에선 주변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또한 인근 지역에 대하여 중심부가 될 수도 있다. 중심부가 강제하는 보편주의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창조적 이념을 창안해야 한다⁶⁶⁾는 점에서 볼 때 아시아인들 간의 왕래는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가까워지고 교차하면서 국가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도시와 지역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부산의 지역문화

부산은 지리적으로 대륙의 끝이자 해양이 시작되는 곳으로 대륙과 해양의 접점지대인 만큼 끊임없는 교환과 변화의 본거지였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부산의 모습이 형성, 성장, 변화해 갔다.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⁶⁷⁾. 부산이 해양과 대륙의 접점인 이상

65) 이동연, 「동북아 대중문화 속의 미학」, 제3회 동북아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위 자료집(2007), p. 134.

66) 구모룡, 《지역문화와 주변부적 시각》, 신생(2005), pp. 7~8.

67) 부산사람들은 인정이 많으나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고, 거친 해양정신, 신선스러운 선비정신, 대인승배, 신의의 추구, 저항적 민주의식, 송고미 의식 등의 다양한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김성국, 「부

부산의 지역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부산만큼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드물며 부산의 문화만큼 확장적이고도 역동적인 성격을 띠는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⁸⁾.

부산의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은 매우 많다. 모던과 포스트모던, 전통과 첨단, 도시성과 준도시성, 농어촌의 모습이 한데 범벅되어 있는 모자이크 같은 곳, 이것이 바로 부산의 역동성을 구성하는 큰 인자들인 것이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부산다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서울에 비해서는 비중심이면서 주변의 다른 중소도시들에 비해서는 또 하나의 중심이기도 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반주변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반주변이 안고 있는 일반적 조건의 지역적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복합체들로 구축되어 있는 만큼, 부산은 그 자체가 이미 틈이면서, 또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역시 무수한 틈들로 균열되어 있다⁶⁹⁾.

다양한 문화들이 충돌하고 뒤얽혀 있는 부산은 그 자체적 성격만으로도 혼종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문화’를 접하는 수많은 타지역 사람들이 체험하는 경험은 색다른 것이다. 실제로 김해공항과 부산역, 부산연안여객부두를 통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으며, 부산지하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로 방송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국제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2007년만 하더라도 제12회 부산바다축제,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제 16회 부산 자갈치축제, 제3회 부산 불꽃축제, 제2회 세계한상대회 등이 개최되었다⁷⁰⁾.

그러나 오늘날 지역문화는 이중의 소외를 받고 있다. 말하자면 중심부 문화를 모방하고 소비하는 것이 지역문화의 지배적 흐름이 되었다. 중심부의 독점적 문화자본과 지배적 문화권력의 해체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⁷¹⁾. ‘서울/주변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지역문화, 부산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타협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3. 부산과 중국의 국제교류

부산은 세계각지의 도시들과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도 남다르다. 한 가지 예로 부산역 앞에 있는 문은 상해문(上海門)이다. 지난 99년

산학과 부산의 이해」, 김성국 외, 《2005 부산학시론》,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5), pp. 20~29.

68) 이성훈 외, 《대중문화를 통해 부산 들여다보기》, 2006 부산학연구 교양총서,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6), p. 7.

69) 이성훈 외, 위의 책, p. 115~116.

70) 부산광역시청 (<http://busan.go.kr>)

71) 구모룡, 위의 책, 지역분권워크샵자료집(2002), p. 156.

시 당국에 의해 이 지역은 ‘상해거리’로 명명되면서 부산의 국제성을 대변하는 모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1884년 청국영사관이 들어오면서 중국인 거류지(청관거리)로 변모하였다. 도시의 변화는 물론 청관거리 또는 부산에만 국한되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청관거리로 대표되는 부산의 역사적 경험들은 부단하게 이 공간에서 외부와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유동성이 가져다 준 면역력은 부산이 가야할 미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접속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 ‘그 다양한 이질성이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⁷²⁾. 부산의 역동적인 변화들은 앞으로의 희망을 열어둔다. 이질적인 것들이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뒤얽혀 열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부산은 중국 상하이와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관계를 꾸준히 맺고 있다. 2005년 12월까지 연제구와 황포구, 영도구와 노만구, 동래구와 홍구구, 금정구와 보타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한 자매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2004년 2월까지 부산광역시 의회와 상해시인민대표대회의, 부산지방검찰청과 상해시 인민검찰원,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과 상해시 공안국, 부산상공회의소와 상해국제상의협회, 부산일보와 해방일보, 국제신문과 문화보, 한국방송공사 부산총국과 상해 텔레비전, 부산문화방송과 동방텔레비전,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상해외국어대학, 한국해양대학교와 상해해운대학, 동아대의대와 상해의대, 부산발전연구원과 상해국제문제연구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등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들과의 교류도 활발하다⁷³⁾. 부산과 중국의 활발한 왕래는 중국인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만드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4.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 현황

중국에서 한국어 능력이 취업에 중요한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을 찾는 유학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중국 유학생이 많이 찾는 유학국 2위로 올라섰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정규 학위 뿐 아니라 대학 부설 한국어 연수기관 등에 등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인 3만 2557명이다. 이 중 중국인 학생은 2만 80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1만 1646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학내 구성원 중 외국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06년 1만 7498명으로 가파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⁷⁴⁾.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들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부산의 각 대학교에는 외국인

72) 고순희 외, 《부산도시이미지》, 부산학 기획연구,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4), pp. 30~34.

73) 부산광역시 상해무역대표처 (<http://www.51etrade.co.kr>)

74) 황원중, 「몰려오는 중국 대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자”」,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02일.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54425)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아래 <표 3>은 2007년 3월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대학별 통계 자료이다.

국적· 학교별	계	경성	고신	동명	동서	동아	동의	부경	부산	신라	영산	외대	인제	해양
계	3,218	88	59	192	185	388	114	242	472	612	255	345	139	127
중국	2,574	56	32	187	119	311	92	152	345	576	240	275	91	98
일본	108	2	1	0	4	20	5	24	17	10	0	20	7	9
베트남	93	0	0	4	1	2	4	20	11	2	8	25	7	9
대만	68	3	3	0	0	16	3	8	30	0	1	3	1	0
몽골	44	0	1	1	0	20	2	0	2	2	0	0	16	0
러시아	37	1	0	0	17	3	4	3	1	0	3	5	0	0
인도네시아	33	17	0	0	2	0	0	7	4	1	1	0	0	1
기타	261	9	22	0	42	16	4	28	62	21	2	17	22	16

<표 3> 부산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⁷⁵⁾

위의 통계 자료를 통해 부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약 2,500명을 넘으면서 단연코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류를 통하여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특히,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외국 유학생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⁷⁶⁾.

중국인 유학생들의 관리와 생활을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부산의 대학가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과 재학생 간 1:1 멘토링⁷⁷⁾ 등은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유학생생활 하면서 느낀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고쳐서 오해와 차별이 없는 유학생생활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부산에 유학 중인 중국유학생들이 체험한 부산의 단상을 이야기 한 글들이다.

75) 부산 국제교류재단 (<http://www.bfia.or.kr>)

76) 이병환, 위의 글, p. 159.

77) 유학, 취업 등 한·중 교류가 크게 늘면서 부산지역 대학가에는 중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로 중국어 강의를 실무중심으로 개편하거나 새로운 교과과정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동의과학대학에는 중국 유학생과 재학생간 1:1 멘토링 제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동의과학대 측은 “재학생을 상대로 멘토링 신청을 받으면 경쟁률이 4:1에 이를 정도”라며 “중국 유학생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정보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국어 e-러닝 프로그램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동서대가 지난 4월 중국회화 위주로 강의를 개강한 공자아카데미에는 수강생이 100여명이나 된다. 중국 산둥대에서 파견된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다 동서대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보통 5~6명에 불과하던 중국어 복수전 공자들이 올해에는 3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종균, 김경희, <부산일보>, 2007년 08월 31일.

#1. 내륙지대에 살았던 나는 부산에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게 되었다. ... 한국에 온 지 며칠 쯤이 되는 날, 나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내야 했다. 처음에는 이 등록증 하나로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 등록증은 그저 신분증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려고 해도, 내가 가입하고 싶은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이 등록증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부산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표준한국어를 배우는데서였다. 학생들이 대부분 부산학생들이어서 자연스럽게 듣고 배우고 말하는 것이 전부 경상도 말투였다. (전리엔화, 동의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⁷⁸⁾

#2. 부산 신라대에 유학을 와서 외국인유학생 동료들과 더불어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 섞여 캠퍼스 생활을 하는 동안 중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를 피부로 체험하고 느낀 점이 참 많다. ... 한국 여대생들의 이미지가 낮설었다. 연예인 같은 화려한 화장, 너도나도 열심히 다이어트 열풍, 여성스러움과 넘치는 애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특징이 무척이나 생소했다. 중국 여대생들은 화장을 많이 안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다닌다. ... 적극적인 성격은 한국인의 덕목중의 하나이다. 친구들과 영어수업을 할 때 교수님의 질문에 한국인 친구들은 몰라도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할 정도로 어학공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대목은 이웃나라 사람인 중국인도 배울만하다. 유학생 신분으로 부산에서 지내면서 본 여러 가지 대학풍경과 한국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은 이방인인 내 눈에 신기한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부산에서 유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중국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하고 좋은 점을 본받도록 하고 싶다. (장베이,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⁷⁹⁾

#3. 중국 엔타이에는 많은 외국인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 이들과 친분을 쌓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했다. 그러다 평소 관심이 많던 한국의 패션과 보석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지난 2005년 부산에 왔다... 한국의 유학생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준다. 심지어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문화를 보면 너무 놀랍다. 이에 반해 중국은 개인적인 노하우나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자오수잉(赵素影), 부산정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2학년)⁸⁰⁾

#4. 바다가 좋아 부산으로 유학 왔다는 중국인 왕소라(19세, 부산대학교)씨는 한국 드라마의 왕팬이었다. '풀하우스'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 가수 '비'처럼 잘생기고 부드러운 한국 남자, 그리고 눈이 저절로 돌아가는 예쁜 여자들, 이 모든 것이 유학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였다. 막상 한국에 온 후 예쁘지 않은 풍경과 사람들도 있다는 게 충격 아닌 충격이었다고 ... 중국인 유학생 왕강도(23세, 동의대학교)씨는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 전체를 바라 본 풍경을 잊을 수 없다. 탁 트인 바다와 오밀조밀 모인 건물들을 내려다보며 유학 생활의 울적함을 달래곤 한다. ... 중국인 유학생 리슈(22살, 부산대학교)씨는 한국 여학생들이 아주 이른 시간에 수업이 있어도 예쁘게 치장하고 온다며 혀를 내둘렀다.⁸¹⁾

78) 전리엔화, 「부산유학생의 단상」, 피플광장, <부산일보>, 2004년 10월 07일.

79) 장베이, 「한중 대학문화의 차이」, 피플광장, <부산일보>, 2005년 03월 09일.

80) 자오수잉(赵素影), 「온라인 정보공유 문화 놀라워」, 한국에 살며, <부산일보>, 2007년 06월 07일.

오랜 기간에 걸친 부산과 중국 각 지역간의 문화교류는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갈수록 유학, 취업 등의 인적 교류도 늘어나 중국인들을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유학생들과 한국인 재학생들이 서로 돕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은 양국의 교류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학생들이 느끼고 받아들인 부산의 모습이 향후 부산, 넓게는 한국을 떠올리는데 하나의 중요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81) 송지연, 「우리도 한다 ‘미남미녀들의 수다’」, <부산일보>, 2007년 06월 07일.

제2절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실태

다음은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결과와 분석이다. 먼저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 실태를 알고자 했던 <문제 1.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 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4개 문항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과 같다.

유효	유형	빈도(명)	비율(%)
처음 접한 시기	청소년	58	25.2
	대학생	103	44.8
	현재 유학생	69	30.0
	합계	230	100.0
수용 빈도	거의 매일	35	15.2
	자주 이용한다	80	34.8
	보통이다	86	37.4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28	12.2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	0.4
	합계	230	100.0
수용 경로	TV	56	24.3
	Computer	76	33.0
	CD Player or MP3	20	8.7
	영화	52	22.6
	기타	26	11.6
	합계	230	100.0
수용의 선호도	TV 드라마	59	25.7
	음악	56	24.3
	영화	63	27.4
	게임	27	11.7
	기타	25	10.9
	합계	230	100.0

<표 4> 한국 대중문화의 수용실태

1. 수용시기의 다양성과 적극적인 수용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이 처음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된 시기는 대학생 시기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현재 유학 중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한류 수용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청소년층의 한류 수용에 관한 연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부산에 유학중인 중

국민 유학생들은 청소년 시기 보다는 대학생 시기에 와서, 그리고 한국에 유학을 온 이후에 접했다고 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층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흡입력이 강한 것이지만, 현재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인구 이동을 통해 특히, 유학을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크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이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인류(人流)’에 대한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와 대학생 시기였다고 답한 학생들처럼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중국에서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기도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230명의 응답자 중 1명에 불과하여 0.4%의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거의 매일 이용하거나, 자주 이용하거나, 보통의 빈도로 이용하는 학생이 전체의 8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른 수용 분포와 능동적인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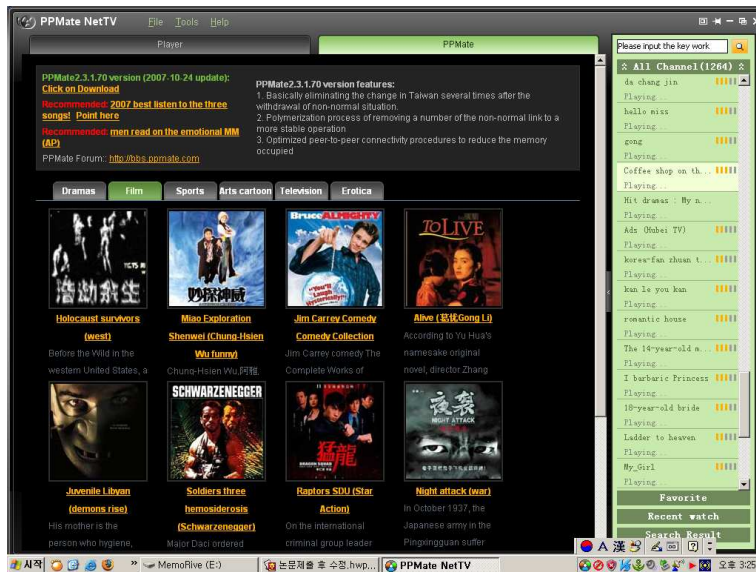
수용경로에 대한 분석에서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은 주당 평균 컴퓨터를 16.7시간 사용하며 그 중 약 1/3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한다⁸²⁾. 중국의 젊은 층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중국인 유학생 왕팅팅(王婷婷,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생)씨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컴퓨터 프로그램인 ‘PPMate’를 통해 보고 있으며, 본인 이외의 다른 중국인 친구들도 자주 이용한다고 알려주었다. 이것은 컴퓨터를 수용경로로써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결과, 2007년 11월 9일 당시 <과리의 연인>, <발리에서 생긴 일>, <커피 프린스 1호점>, <황진이>, <내 이름은 김삼순> 등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많은 드라마들을 무료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커피 프린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007년 8월 28일에 종영한 드라마로써 한국 드라마 유통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CCTV에서는 더빙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지만, 온라인(On-line)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라마 파일들은 자막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화를 보는 현장감을 살릴 수 있고, 문화번역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문화번역과

82) 이정용, 「한국과중국의 대학생 의식비교 -자매결연 두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3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2006), p. 458.

관련된 오류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다⁸³⁾. PPMate 프로그램을 실행한 화면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PPMate 실행 화면⁸⁴⁾

이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한국의 프로그램과 음악 등을 직접 찾는 방식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수용하는 능동적인 수용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없어도 자막을 통해 볼 수 있으므로 그 수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수용경로를 TV라고 답한 경우는 한류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의 시청을 즐기는 집단들이라 짐작된다. 한국의 드라마 내용 가운데 청춘 사랑극이나 가족드라마는 어느 지역에서 방영되든 간에 인기를 끌 수 있는 드라마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배경, OST의 매력, 사랑을 나누는 방식들을 그려내는 에피소드 자체의 참신함 등이 어우러져 중국인들의 눈길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⁵⁾. 예를 들어

83)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국가 간 문화 유통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문화’는 대만 사회의 문화 소비 유통 시스템을 거쳐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한다. 문화상품의 고부가가치적 성격이 확보될 수 없는 환경이나 경제적 위험성 때문에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입하는 대만의 에이전트들은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여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자막을 내보내고 대만 성우들에 의하여 ‘더빙’된다. 또한 드라마 앞, 중간, 뒷부분의 시간에 광고주나 음반회사에게 판매된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 삽입된 O.S.T를 빼고, 대만 노래를 삽입하기도 한다. 드라마를 수입하는 담당자는 알려진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수입하며, 대본을 완전 번역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유학생이나 화교 출신들을 고용하여 더빙 과정에서 ‘오역’과 ‘의도적인 각색’이 일어나기도 한다. 김현미, 「대만속의 한국 대중문화」, 조한혜정, 위의 책, pp. 173~175.

84) 사이트(<http://www.ppmate.com>)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다.

85) 손병우·양은경, 「한국 대중문화의 현주소와 글로벌화 방안 -한류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3), p. 162.

은 인기를 얻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풀하우스> 등은 작은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전개되어 인기가 있고, 스타들과 그들이 착용했던 패션도 함께 인기를 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인 'mnet(<http://www.mnet.com>)'을 통해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일상을 보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TV를 통해 드라마를 비롯하여 오락프로그램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한국어가 부족한 중국 유학생들이 별다른 언어능력이 필요 없는 음악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TV시청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국제영화제가 매년 성황리에 열린다. 올해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해운대에서 열린 오픈토크에서는 200여명의 관객이 몰렸다. 특히 중국의 평 샹오강(冯小刚) 감독을 만나기 위해 중국 유학생들이 해운대를 많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⁸⁶⁾.

부산이 영화제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일까. 실제로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영화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비율 또한 높은 결과를 차지했다. 선호도에 관련된 질문에서도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로 꼽았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제 1회를 치루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다.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영화제 관계자들의 열의와 노력의 결과이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개최 장소인 남포동 영화골목이 주는 사람 사는 것 같은 이미지, 북적대어 어깨 부딪히는 장터에서 풍기는 활력과 열기, 즉 서민성이 영화제 기간 내내 같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타가 운집하는 최첨단·최고급 화려함이 골목길의 서민성과 어우러져 빚어낸 이미지야말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민성은 국제성, 첨단성, 고급성 등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⁸⁷⁾. 부산이 가진 다양성이 뒤엎혀 영화라는 대중문화와 만남으로서 부산이 가진 이미지와 가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들을 중국인 유학생들도 수용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영화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기존의 TV드라마에만 편중해 있었던 연구에서 한국영화의 수용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부산은 국제적인 영화제를 비롯한 부산지역 만의 특성상 중국인 유학생들이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도 하나로 작용했다는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과제이다.

86) 송지연, 「광경택 감독-평 샹오강 감독」, PIFF 오픈토크, <부산일보>, 2007년 10월 06일.

87) 고순희 외, 위의 책, p. 159.

제3절 유학 과정의 경험

1.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

다음은 문제2. 유학 중 한국의 대중문화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유효	유형	빈도(명)	비율(%)
영향 여부	매우 그렇다	13	5.7
	그렇다	96	40.4
	보통이다	79	33.9
	그렇지 않다	40	17.4
	전혀 그렇지 않다	6	2.6
	합계	230	100.0
긍정적 영향	타문화 수요의 이질감 감소	27	11.7
	심미적 오락과 재미	46	20.0
	한국 문화의 이해	75	32.6
	한국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인간관계 도움	82	35.7
	합계	230	100.0
부정적 영향	한국 대중문화를 싫어함	9	3.9
	시간낭비	52	22.6
	수동적으로 수용	55	23.9
	경제적 부담	114	49.6
	합계	230	100.0

<표 5>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

1) 긍정적 영향

한국의 대중문화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한 뒤 받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른 답변을 해 주었지만, 공부를 목적으로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얻고자하는 실용적인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주변에서 특히, 젊은 20대 층의 대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잡담시간에 TV속 인기 프로그램과 스타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TV를 보지 않는 사람은 대화에 끼어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한국의 젊은 대학생층은 여가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이야

기를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인 것이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크다고 보겠다.

2) 부정적 영향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한 뒤 받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답변에서 경제적 부담이 49.6%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아직까지 한국의 대중문화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서로 다른 금전적 여건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인들에게 문화자본의 논리로써 무분별하게 요구되어지는 소비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해양대학교의 기숙사에 살고 있고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각 방에 TV가 없다. 컴퓨터의 경우 각자 인터넷 연결에 따른 사용비가 부담된다. 공동 피시룸이 있지만 실제 각자의 기숙사 건물과 떨어져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개인 컴퓨터를 가져와서 각자의 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대중문화의 접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중국은 한국에 비해 많은 양의 CD나 DVD가 불법으로 대량 유통되어 값이 싼 편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에 비해 비싸다. 또한 스타를 모방하기도 한다는 면에 있어서 스타가 하고 있는 악세사리와 옷 등의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 여학생들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예쁜 스타들의 화장법과 스타일을 배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유학을 목적으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기는 학생들의 비율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2. 수용의 혼종화

유호	유형	빈도(명)	비율(%)
수용의 내면화 방식	비판적으로 수용	20	8.7
	있는 그대로 수용	21	9.1
	좋은 점과 싫은 점을 구별하면서 수용	106	46.1
	차용이나 모방을 하면서 수용	76	33.0

	맹목적으로 수용	7	3.0
	합계	230	100.0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와 다른 점	다른 나라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음	41	17.8
	유행에 민감	67	29.1
	콘텐츠의 다양성	51	22.2
	자유로운 정서 표출	48	20.9
	없음	23	10.0
	합계	230	100.0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수용의 차이점	취향에 따라 선택적 수용 가능	47	20.4
	빠른 수용	83	36.1
	적극적 수용	66	28.7
	없음	34	14.8
	합계	230	100.0
수용의 장애	경제적 부담	35	15.2
	접근이 불편	23	10.0
	한국어 능력 부족	89	38.7
	한국인들과 선호부분이 달라 이질감 생성	83	36.1
	합계	230	100.0
수용의 활성화 방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57	24.8
	한국만의 독특한 소재 활용	61	26.5
	한국어 교육	80	34.8
	이대로 만족 생성	32	13.9
	합계	230	100.0

<표 6>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혼종성

1) 수용의 유형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수용의 혼종성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유학과정에서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경험에 관한 문항을 가

지고 그 특징을 해석하였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내면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별하면서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차용이나 모방을 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 순이다. 기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의견이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유형을 크게 ‘소극적 수용형’과 ‘효율성 추구형’, ‘적극적 수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인 수용형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으로 전체의 17.8%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앞선 5번 문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처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 수의 효율성 추구형은 위의 부정적인 영향(경제적 부담 및 시간낭비)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과 긍정적인 영향(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인 친구들과의 공감대)을 받는다는 학생들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공감하여 좋은 점과 싫은 점을 구별해서 수용하는 효율성 추구형이라 부를 수 있다.

차용을 하거나 모방을 하기도 한다고 답한 33.0%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3.0%는 적극적인 수용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적극적 수용형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몰입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어 배우나 가수의 스타일을 모방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유학하면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할 기회를 가지고 한국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한국과 한국인, 한국의 문화 등 고정적이었던 것들에 대한 해체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은 실제로 좋은 점이 있으면 학습하거나 모방을 하기도 하면서 내면화하려고 하고, 비판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석하면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문화수용에 있어서 일방적인 주입방식이 아니며, 한국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껴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능동적인 수용태도를 보이면서 경험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와 문화가 만나 뒤엎히는 혼종화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 모방과 차용의 수용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 차용과 모방을 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수용에 있어서 혼종성의 특징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하나의 ‘흉내내기’ 현상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외모상의 모습이 변하는 중국인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 스타

일이나 유행 스타일대로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자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불편함 때문에 나에게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길은 화장이나 짧은 치마가 한국 여대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과 학교마다 분위기가 약간씩 차이도 나고, 실제 화장을 하지 않거나 수수한 차림을 좋아하는 한국 여대생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대학생들이 한국의 대학분위기를 이야기할 때 여학생들의 화장과 하이힐 등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홍내내기의 한 예로 한국에서 드라마 <풀하우스>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을 때 여주인공 송혜교의 머리스타일이 유행한 적이 있다.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묶어 옆으로 늘어뜨리는 방식인데 여름방학 때 중국에 다녀온 중국인 친구의 말을 빌리면 당시 <풀하우스>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으며, 중국의 여학생들도 송혜교를 흉내내어 이러한 머리스타일이 인기라고 했다.

중국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 현상을 연구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인해 한국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고 이들을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가수들의 모습을 콘서트와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접하게 된 중국 신세대들은 미용실에서 한국 인기스타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같은 스타일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한다. 한국풍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다보니 중국의 미용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식 헤어스타일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기도 했다. 또한 한국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의 과감한 노출과 장식, 화려한 색상의 의상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피어싱, 문신, 성형 등도 영향을 끼쳤다⁸⁸⁾.

이는 곧바로 신세대들을 겨냥한 유명 스타 마케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문화 자본의 개입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무분별하게 따라 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의 심리에서 발생하는 소비형태를 곱게 볼 시선은 없다. 거기다가 자본의 권력이 미치는 부분에는 그에 대한 저항과 배척의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실제 2004년도에 중국의 한 시장에서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본 적이 있다. 영어와 한자, 일본어가 적혀있는 옷을 본 적은 있었지만 한글은 처음이라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내용은 아무 의미 없는 드라마 제목과 배우 이름 등이었다. 예를 들자면 가을동화, 송승헌, 송혜교, 안재욱, 친구 등과 같은 글자들이 티셔츠에 일렬로 적혀있을 뿐이다. 문장으로 이어진 글도 아니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표현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 뜻을 알고 난 후 중국인은 어떤 느낌이 받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였다. 문화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소통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이해와 수용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88) 박길순,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현상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6호, 한국생활과학회(2004), pp. 976~978.

3.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비교

1) 한국 대중문화의 특성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유행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 순으로 콘텐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정서 표출, 다른 나라와의 문화가 잘 융합되었다는 점, 다른 점이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특성을 수용하고 있다기보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다는 답변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문화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제시를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점이 없다고 답한 학생도 10%나 된다는 점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힘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중국 내에서의 대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이미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대를 느끼면서 소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반면에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라고도 해석 가능하다.

2) 수용의 차이

유학과정에서 느끼는 차이점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국에 와서 직접 수용했을 때와 중국에서 수용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빠른 수용, 적극적인 수용, 취향에 따른 선택적인 수용의 순으로 답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14.8%였다. 이도 앞서 살펴본 문항과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와 중국의 대중문화의 차이점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의 경우처럼 문화전파의 속도가 빨라졌음을 나타낸 결과이다. 과거 일방적으로 한국이 주도하여 수출했던 방식에서 수용자를 고려한 마케팅으로의 전환이나 수용자들의 능동적인 수용으로 중국 내지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원하는 대중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의 수용에 비해서는 감이 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사이에서 각자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수용할 수 있고, 수용에 있어서 적극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콘텐츠의 선택적인 수용을 원하고 있으며, 좀 더 빠른 수용에 대해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소통과정에서의 문제와 대안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에 대한 질문에 제일 많은 학생이 한국어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분과 나의 관심부분이 달라서 이질감이 생긴다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의 경우 이제껏 중국에서 더빙이 되어 있거나 자막이 있는 것들을 시청해 왔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중국어 자막이 없이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이해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유학생들은 타지로 유학을 가게 되면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언어의 향상과 빠른 적응을 위해서 상대국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하길 원할 것이다. 한국인들과의 선호부분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대중매체의 접근이 불편하다는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학생들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높았다.

한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 내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연수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조차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다⁸⁹⁾.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산의 각 대학별로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유학생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⁰⁾. 이러한 행사 진행이 많이 늘어나고 재학생들과의 교류도 늘어난다면 이질감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정도 좀 더 다양해진다면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쉬이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중국 내에

89) 강윤규,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 준비 안된 학교」, 오마이 뉴스, 2007년 11월 29일.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8730)

90) 부산지역 대학들이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과 따스한 정을 나눠 눈길을 끌고 있다. 경성대는 교내 콘서트홀에서 '외국인 가족 한가위 축제'를 열었다. 이날 외국인 학생, 외국인 교수 가족, 한국어학당 수강자 등을 초청해 한국의 추석 전통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즐겼다. 인제대도 추석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중국 유학생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했다. 인제대 학생과 중국 유학생들은 각각 전통복장인 한복과 치파오를 입고 각각의 전통음식인 송편과 월병을 서로 바꿔 만들어 먹었다. 동의대도 기숙사 효민생활관 식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176명과 한국어 과정 수강생 35명 등 외국인을 초청해 '외국인 유학생 추석맞이 단합 행사'를 가졌다. 신라대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추석 문화 체험행사를 가졌다. 김종균, 「부산지역 대학외국인 유학생 '한가위 정 함께 나눠요」, <부산일보>, 2007년 09월 20일.

서의 문화수용만으로도 대중문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의 대중문화의 인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독특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높은 의견을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부산문화' 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인식

유효	유형	빈도(명)	비율(%)
유학 경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26	11.3
	유학원	75	32.6
	개인적 정보수집	88	38.3
	지인의 추천	41	17.8
	합계	230	100.0
부산에 대한 문화적 시각	스펙터클(Spectacle)한 문화공간	18	7.8
	친 환경적 문화공간	90	39.1
	다양한 혼종성의 문화공간	35	15.2
	변화와 이동이 빠른 문화공간	24	10.4
	외국문화 중의 하나인 문화공간	63	27.4
	합계	230	100.0

<표 7> '부산문화' 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인식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을 유학 장소로 정한 경로에 대한 물음에 개인적인 정보수집과 유학원을 통한 경로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능동적으로 부산을 유학 장소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교환학생의 경우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유학을 오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산에 거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마치고 돌아간 학생들이 많이 있으므로 11.3%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인의 추천에 의해 왔다는 답변이 17.8%였다는 점을 비추어 부산이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도시이고, 부산을 접하거나 부산에 대해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부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산만큼 일찍 국제화가 이루어진 도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조선조부터 설치되어 왔던 왜관이나 일제강점기의 일본과의 교류에서부터 6·25에 건설된 국제시장과 UN묘지, 상해(上海)문과 국제여객터미널과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등 역사적으로건 현재적으로건 국제도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⁹¹⁾.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문화'를 어떠한 문화공간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에 답변자들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친환경적 조건이 가미된 문화의 공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91) 김태만, 「부산성, 주변성, 해양성」, 『오늘의 문예비평』, 제42호, 세종출판사(2001), pp. 231~232.

그 다음으로는 외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라는 의견, 다양한 혼종성의 문화공간이라는 답변 순이었다. 앞서 살펴 본 기사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내륙에 있다가 부산에 와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에 온다면 찾아가는 곳은 단연 해운대와 광안리라고 했다. 자갈치 시장을 끄는 이들도 많았다. 용두산 공원의 전망대에서 부산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추천하기도 한다⁹²⁾. 이러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이 지닌 정체성 중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핵심은 아무래도 부산이 지닌 해양적 성격이다. 부산의 10대 풍경에는 오륙도, 해운대, 태종대, 신선대 등 바다의 자연환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⁹³⁾.

부산에 있어서 친수공간은 부산의 도시경관을 결정짓는 특수한 요소로서 이를 도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친수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 함께 그 곳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특성 및 이용방면 상의 특성으로 인해 친수공간은 다양한 환경변화의 요구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왔다⁹⁴⁾. 부산의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자연적인 환경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삭막함을 덜고, 매력적인 환경을 가진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부산문화 역시 외국 문화 중 하나라는 의견은 부산문화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유학을 통해 접하게 되는 문화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화가 뒤얽힌 혼종 문화 공간이라고 답한 학생들과 역동적이고 빠른 문화공간이라는 의견, 스펙터클한 문화공간이라는 의견들은 부산이 가진 시끌벅적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항구 등을 통한 일본인 관광객, 초량동 외국인거리, 중구 차이나타운 축제 등 여러 가지 문화가 혼종되어 있는 모습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부산문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부산 지역을 이해하고 부산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문화의 모습을 이해한다. 이것은 국가대 국가로서의 교류가 아니고, ‘탈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92) 송지연, <부산일보>, 2007년 06월 07일 위의 기사.

93) 김태만, 앞의 글, 『오늘의 문예비평』, pp. 232~233.

94) 김태만,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와 관광」, 『국제해양문제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2007), p. 147.

제5절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과 향후 수용에 관한 인식

유효	유형	빈도(명)	비율(%)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	다양한 문화의 혼종	45	19.6
	공감대 형성	32	13.9
	다양한 즐길거리	57	24.8
	모방하고 싶고, 스타일이 좋음	50	21.7
	신세대 감각과 잘 맞음	46	20.0
	합계	230	100.0
귀국 후 수용 여부	수용 함	215	93.5
	수용하지 않음	15	6.5
	합계	230	100.0
귀국 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표현	중국에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함	17	7.4
	문화를 통해 한국을 잘 이해하게 되었음	52	22.6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한 후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음	49	21.3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과 비슷함	43	18.7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69	30.0
	합계	230	100.0

<표 8>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과 향후 수용에 관한 인식

1.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른 답변이 나왔다. 이처럼 고르게 분포된 답변들은 그만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뚜렷한 자기 주관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젊은 대학생층에서 보았을 때 중국의 개방과 소비형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적합한 공감대가 있고, 그리하여 신세대의 감각과도 잘 맞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으므로 모방하고 싶고, 즐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호 교환적 문화교류

한국과 중국 간에는 경제나 정치교류 외에 수많은 학술적·문화적 교류가 있어왔다. 다만 문체는 진정한 소통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교류는 쌍방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방향적이었던 것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호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중 간 교류는 균등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중 교류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소통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깊은 애정과 관심이 전제된 상호 이해의 노력을 통해 양국 지식인들 사이에 연대의 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⁹⁵⁾. 이러한 연대의 기초로써 점차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들의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배우고, 느끼고,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때, 더욱더 소통의 기회와 가능성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향후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등 계속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적이 중국이고 비자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귀국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중국에 귀국한 뒤 한국의 대중문화를 계속 수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수용할 것이라고 답변이 93.5%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귀국한 후에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겠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직접 접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이러한 문화수용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 중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했다고 답한 학생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는 답변이 높았다. 반면, 한국의 대중문화와 중국의 대중문화를 구별 짓는다는 것보다 비슷하다고 말하겠다고 답한 학생들도 많았는데, 이는 이미 중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점들에 부합하는 기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문화의 이동으로 인해 뒤섞여 있는 상태라 특별한 특이성을 찾을 수 없다는 해석과 함께 굳이 한국의 대중문화와의 교류에 대한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유행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 순으로 콘텐츠가 다양하다, 자유로운 정서가 표출된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잘 융합되어 있다, 다른 점이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특성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과 수용

95) 김태만, 《변화와 생존의 경계에 선 중국 지식인》, 책세상(2004), pp. 169~170.

태도에 따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대학생들이 부산에서 접하게 된 한국의 대중문화는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의 특성 가운데 혼종성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확대적인 교류 현상을 문화제국주의 시각과 문화적 근접성이란 측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층 더 나아가 문화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뒤틀림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대중문화 소비자들의 역할을 중요시 한 것으로 문화 간 소통에 있어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뒤엎혀서 각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성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의 혼종화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항과 모방이라는 측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료들을 비교하였고,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문화자본의 논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험을 통한 문화의 혼종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부산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부산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특성에 관한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문제 1.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 실태에 대한 분석은 그 수용시기가 다양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선호하는 항목 또한 다양하고 방식도 능동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대학생 시기에 처음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유학 중에 수용하게 되었다는 비율도 높아 유학을 통한 다른 나라의 문화 수용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용 빈도도 보통이상의 비율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7.4%로 많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용경로는 컴퓨터가 가장 많았고 TV, 영화 등의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선호도 역시 영화, TV드라마, 음악 등의 순이었지만 그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문제 2. 유학 중 한국의 대중문화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수용 유형을 크게 ‘소극적 수용형’과 ‘효율성 추구형’, ‘적극적 수용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인 효율성 추구형은 수용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경제적 부담 및 시간낭비)을 받는다고 답변한 학생들의 의견과 긍정적인 영향(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인 친구들과의 공감대)을 얻는다는 학생들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공감하여 좋은 점과 싫은 점을 구별해서 수용하는 효율성 추구형이라 부를 수 있다. 차용을 하거나 모방을 하기도 한다고 답한 33.0%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3.0%는 적극적인 수용 형태를 보인다. 이러

한 적극적 수용형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몰입하고, 대중문화 수용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며, 배우나 가수의 스타일을 모방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 차용과 모방을 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수용에 있어서 혼종성의 한 부분으로 하나의 ‘홍내내기’ 현상이다. 또한 유학과정에서 느끼는 차이점에 대한 분석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국에 와서 직접 수용했을 때와 중국에서 수용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빠른 수용과, 적극적인 수용, 취향에 따른 선택적 수용의 순이었다.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와 더불어 시공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현지에서의 직접적이고 편리한 수용과 능동적인 경험은 또 다른 수용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에 대한 질문에 제일 많은 학생이 한국어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분과 나의 관심부분이 달라서 이질감이 생긴다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고,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높아 부산의 유학생을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3. 부산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던 분석에서는 부산을 능동적인 자신의 선택에 의해 유학 장소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인의 추천도 17.8%였다는 점을 비추어 부산이 중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도시이고, 부산을 접하거나 부산에 대해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부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문화에 대해서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친환경적 조건이 가미된 문화의 공간이며, 외국 문화의 하나, 혼종성의 문화공간의 순으로 답하였다.

문제 4. 한국 대중문화의 매력에 대한 생각은 한 가지 방향으로 뚜렷하게 치우쳐지지 않았으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비형태의 변화 등과 공감대 형성, 신세대 감각, 다양한 문화의 혼종으로 보았고, 모방하거나 즐기기도 한다는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향후 수용에 관해서는 귀국 후에도 한국의 대중문화를 계속 수용할 것이며, 귀국 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다른 문화를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견과, 한국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느꼈다는 순으로 대답하였다.

각 분석결과들에서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비교하기도 하며, 즐기고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결론

중국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유행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대중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가치관과 소비취향이 변하였고,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통한 틈새를 이용하여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화 간의 뒤엎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의 혼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방이라는 성격은 중국 대륙 내의 대중문화 형태를 변화시켰고, 저항으로써의 반한 감정이 우려되기도 하는 시점이다.

이처럼 단기간 유행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 과급효과도 크게 작용하여 문화자본의 논리가 내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능동적인 주체인 중국 유학생들의 수용 특성 가운데 혼종성을 파악하고, 문화자본 논리를 비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동아시아 도시들 간의 교류와 협정, 문화와 자본의 이동, 그리고 넘쳐나는 인류(人流)의 흐름은 중심과 주변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강제적이지 않으며, 조건에 따라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수용에 있어서의 재생산 방식도 각각 다르며, 국적과 민족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다.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면 초국적 기업의 자본에 의한 권력이 혼재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혼종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이라는 도시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행사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부산에 유학 중인 외국인 들 중 중국인 수는 단연 제일이며, 각 대학마다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에 열의를 띄고 있다. 부산문화 역시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인 혼종성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 관한 본 연구는 그들의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의 수용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 대중문화가 문화민족주의로 가는 길을 배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부산 지역의 경험을 통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배제하고 탈중심적이고, 변화와 변용을 존중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실천방법이 될 것이다. 앞선 연구들에서 한·중 간의 올바른 교류를 위해 일방적인 교류에서 쌍방향 교류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념적 차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교류가 서먹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의 중국 유학생들은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과 한국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대학에서의 유학생과 재학생 교류는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언어 교육을 통한 이질감 해소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간의 연대가 중요해 지고, 문화의 전달과 수용의 방식이 점차 발전되어 협력의 방식이 확대된다면 상호 간의 오해가 줄어들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의 끊임없는 이동이 향후 상호간의 이해에 있어서 바탕이 될 것이며, 문화 이동에 따른 혼종성의 특징으로 끊임없이 뒤섞인다면 강요성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 상호소통의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 수용에 있어서 혼종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사회적 환경과 심리 등에 의해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자본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자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화의 문화과정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부산이라는 한국의 제2수도에서 조사된 유학생들이고, 더운 다양한 대학에서 조사하지 못하고 한국해양대학교와 신라대학교, 수영로교회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져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순희 외, 《부산도시이미지》, 부산학 기획연구,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4), pp.30~34.
-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2005)
- 강상중·요시미순야 저, 임성모·김경원 옮김, 《세계화의 원근법》, 이산(2004)
- 김대래 외, 《부산의 이해》, 효민(2006)
- 김성국 외, 《2005 부산학시론》,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5)
- 김태만, 《변화와 생존의 경계에 선 중국 지식인》, 책세상(2004)
- 김현미,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 하나의 문화(2005)
- 명관화(孟繁華) 저, 김태만·이종민 옮김, 《중국, 축제인가 혼돈인가》, 예담(2002)
- 박성수, 《영화·이미지·이론》, 문화과학사(1999)
- 신윤환, 이한우 외, 《동아시아의 한류》, 전예원(2006)
- 아르준 아파두라이 저,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현실문화연구(2004)
- 이동연,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그린비(2006)
- 이성훈 외, 《대중문화를 통해 부산 들여다보기》, 2006 부산학연구 교양총서, (재)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2006)
- 이와부치 고이치 저, 히라타 유키에·전오경 옮김,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또 하나의 문화(2004)
- 조한혜정 외,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연세대학교 출판부(2003)
- 존 톰린슨 저, 김승현·정영희 옮김, 《세계화와 문화》, 나남(2004)
- 호미 바바 저,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2002)

<논문>

-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제28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07)
- 김선남, 「중국인 대학생의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제14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2007)
- 김설화, 「중국의 ‘한류’ 현상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북경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2002)

김수정·양은경,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수용과 혼종성의 이해」, 『한국어문학보』, 제50권 1호, 한국언론학회(2006)

김용규, 「문화연구의 전환과 잡종문화론」, 『영미문화』, 제5권 2호, 한국영미문화학회(2005)

김태만, 「부산성, 주변성, 해양성」, 『오늘의 문예비평』, 제42호, 세종출판사(2001)

김태만, 「韓流의 정치학 -地域 文化公共網 구축을 위해-」, 『중국어문학』, 제44권, 영남중국어문학회(2004)

김태만, 「한류: 관용의 문화학」, 『국제학논총』, 제10집, 계명대학교 국제학 연구소(2006)

김태만, 「해양도시, 부산의 문화와 관광」, 『국제해양문제연구』, 제18권 1호,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국제해양문제연구소(2007)

박길순, 「중국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한류현상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6호, 한국생활과학회(2004)

손병우·양은경, 「한국 대중문화의 현주소와 글로벌화 방안 -한류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03)

유세경·고민경, 「한국TV 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중국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6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2006)

윤경우, 「중국의 ‘한류’ 수용과 저항: 중국 문화정책성의 국제문화관계학적 함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 22권 3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6)

윤경원·나미수,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 청소년들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한국언론학보(2005)

이병환, 「중국대학생의 “한류” 인식 실태와 그 의미」, 『중등교육 연구』, 제53권 3호,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2004)

이정용, 「한국과중국의 대학생 의식비교 -자매결연 두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3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2006)

이은숙,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 『문학과 영상』, 제3권 2호, 문학과 영상학회(2002)

조창완, 「중국의 한류, 그 흐름과 막힘」, 『창작과 비평』, 제110호, 창비(2000)

조한혜정, 「동/서양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 글로벌 시각 변동의 징후로 읽는 ‘한류열풍」, 『한국문화일류학』, 제35권 1호, 한국문화일류학회(2002)

조혜영,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제13권 2호, 한국교육사회학회(2003)

한홍석, 「중국문화산업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 『현대중국학회』, 제6집 2호, 현대중국연구(2004)

허진 「중국의 ‘한류’현상과 한국 TV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16권 1호, 한국방송학회(2002)

曾汉君, 「试论大众文化对当代大学生价值观的影响」, 南方医学教育, 4期(2006)

詹小洪, 「"韩流"文化盛行于中国及其原因」, 当代韩国, 中国社会科学院(2007)

<보고서 및 자료집>

『인문학을 통한 동북아 대중문화의 성찰』, 제3회 동북아 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07)

윤재식, 『2007 상반기 방송한류 현황 분석』, KBI포커스, 제7권 13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7)

<참고사이트>

고영득, 「“한국인은 개, 中 한국 비하 노래에 네티즌 발끈」, 경향닷컴, 2007년 08월 29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8291138441&code=940100)

강윤규, 「늘어나는 외국인 학생, 준비 안된 학교」, 오마이 뉴스, 2007년 11월 29일.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8730)

김진희, 「‘한국인=개?’ 중국 혐한(嫌韓)랩 논란」,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년 08월 29일.

출처: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708/29/kukinews/v17946555.html>)

두정아, 「중국스타들 “한국 연예인처럼 성형해주세요”」, 세계일보, 2007년 10월 17일. 출처: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710181>)

박재덕·최성진, 「한국의 아이돌 그룹, 日모방단계 넘어서나」, 조이뉴스 24, 2007년 10월 23일.

출처: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290046)

부산 국제교류재단 (<http://www.bfia.or.kr>)

부산광역시청(<http://busan.go.kr>)

부산광역시 상해무역대표처 (<http://www.51etrade.co.kr>)

양혜선, 「‘한국인은 개?’ 중국인이 만든 혐한랩 논란」, 디시뉴스, 2007년 08월 28일. 출처: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243174&curPage=&s_title=1&s_body=&s_name=&s_que=혐한랩&page=1)

온세미로 (<http://cafe.daum.net/manful24>)
 이균성, 「‘슈주’ 숫자갈등이 가요계에 주는 의미」, 조이뉴스 24, 2007년 10월 24일, 출처: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290417)
 이양애, 「‘슈주’ 환경-시원, 中 ‘쾌락대본영’ 출연」, 2007년 08월 10일, EPG 스타뉴스.
 출처: (http://epg.epg.co.kr/star/news/view.asp?actor_id=13176&cnt=1&npage=1)
 이정연, 「강타, 中 안방극장 점령…주연 드라마 TV시청률 1위」, 스포츠동아, 2007년 10월
 16일. 출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160277>)
 이정혁, 「신화, 김동완 한중합작 프로젝트 통해 中진출」, 스포츠 조선, 2007년 10월
 02일. 출처:
 (<http://sports.chosun.com/news/print.htm?name=/news/entertainment/200710/20071003/7ac76107.htm>)
 중화 TV (<http://www.zhtv.co.kr>)
 친휘룡 (<http://cafe.daum.net/seocondemugame>)
 황원중, 「몰려오는 중국 대학생들 “한국에서 공부하자”」,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02일.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54425)

<신문 및 잡지>

고영득, 「“한국인은 개, 中 한국 비하 노래에 네티즌 발끈」, <경향신문>, 2007년 08월 29
 일
 김미영, 「케이블채널, 한-중 합작 드라마 만든다」, <한겨레>, 2007년 7월 12일
 김종균, 김경희, 「대학가 중국어 ‘열풍」, <부산일보>, 2007년 08월 13일
 김종균, 「부산지역 대학외국인 유학생 ‘한가위 정 함께 나뉘요」, <부산일보>, 2007년 09월
 20일
 송지연, 「우리도 한다 ‘미남미녀들의 수다」, <부산일보>, 2007년 06월 07일
 송지연, 「광격택 감독-평 샤오강 감독」, <부산일보>, PIFF 오픈토크, 2007년 10월 06일
 이영진, 「중국시장 공략 달라져야 한다」, <씨네> 21, 2007년 10월 23일
 정인성, 「[심층취재] 중국대륙에 확산되는 한국어 열풍」, <국제신문>, 2007년 6월 25일
 장베이, 「한중 대학문화의 차이」, <부산일보>, 피플광장, 2005년 03월 09일
 자오수잉(赵素影), 「온라인 정보공유 문화 놀라워」, <부산일보>, 한국에 살며, 2007년 06월
 07일
 전리엔화, 「부산유학생의 단상」, <부산일보>, 피플광장, 2004년 10월 07일

부록 1 설문지 (국문)

<한국대중문화 수용의 혼종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하나만 선택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서진입니다.

저는 부산지역에 유학중인 중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수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에서는 TV(드라마), 음악, 영화, 인터넷을 가장 보편적인 대중문화로 보았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이서진(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지역학 전공)

1. 귀하는 언제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까?
① 청소년 시기 ② 대학생 시기 ③ 현재 한국에 유학 중
2. 귀하는 얼마나 자주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자주 이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3. 귀하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경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① TV ② Computer ③ CD Player or MP3 ④ 영화 ⑤ 기타
4. 귀하가 선호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무엇입니까?
① 드라마 ② 음악 ③ 영화 ④ 게임 ⑤ 기타

5. 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한 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줄어들었다
 ② 심미적인 오락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③ 한국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④ 한국 친구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7. 귀하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한 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의 대중문화를 싫어하게 되었다
 ②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수동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④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8. 귀하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②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③ 좋은 점과 싫은 점을 구별하면서 받아들인다
 ④ 차용이나 모방을 하기도 한다
 ⑤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9. 귀하가 생각할 때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
 ② 유행에 민감하다
 ③ 콘텐츠가 다양하다
 ④ 자유로운 정서가 표출된다
 ⑤ 다른 점이 없다
10. 귀하가 직접 한국에서 대중문화를 수용했을 때와 중국에서 수용했을 때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① 내 취향에 따라 골라서 수용할 수 있다
 ②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
 ③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④ 별다른 차이가 없다

11. 귀하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문화 이용 가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② 대중매체의 접근이 불편하다
- ③ 한국어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다
- ④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분과 나의 관심부분이 달라서 이질감이 생긴다

12.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대중문화 수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②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소재의 활용이 필요하다
- ③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 ④ 이대로 만족한다

13. 귀하는 부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학하게 되었습니까?

- ① 교환학생 프로그램
- ② 유학원
- ③ 개인적인 정보수집
- ④ 지인의 추천

14. 귀하께서는 부산이라는 공간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① 스펙터클(spectacle)한 문화의 공간
- ② 산과 바다가 어울어진 친 환경적 조건이 가미된 문화의 공간
- ③ 다양한 혼종성의 문화를 가진 공간
- ④ 변화와 이동이 빠른 역동적인 문화공간
- ⑤ 외국문화 중의 하나인 공간

15. 귀하는 한국의 대중문화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다
- ② 공감대가 있다
- ③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 ④ 모방하고 싶고, 스타일이 좋다
- ⑤ 신세대의 감각과 잘 맞다

16. 귀하가 중국에 귀국한 후 한국의 대중문화를 계속 수용할 것입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17. 귀하가 중국에 귀국한 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 ① 중국에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②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③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한 후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④ 한국의 대중문화는 우리와 비슷하다
⑤ 앞으로도 문화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래의 질문은 답변자의 전반적인 통계학적 자료를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부산 거주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부산에서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어학당 과정생 ② 대학생 ③ 대학원생(석사과정) ④ 대학원생(박사과정)

4. 귀하의 한달평균 생활비(용돈 및 전반적인 유학생할 비)는 한화로 얼마나 됩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 정도 ③ 50만원 정도 ④ 50만원 이상

부록2 설문지 (중문)

韩国大众文化接触过程中混种性研究的问卷调查

(单项选择)

您好!

我是韩国海洋大学东亚细亚系的在读研究生李西真。

我想以釜山地区的中国留学生为主要对象，研究你们在韩国留学期间对韩国大众文化的接受程度。这份问卷中，我想通过电视(电视剧)，电影，唱片，网络等最具有普遍性的大众文化进行调查。

我保证该问卷只作为我的毕业论文中的数据统合参考资料，绝不会有其它的用途。

谢谢您的合作!

2007年 9月

李西真 (韩国海洋大学东亚细亚系研究生)

1. 初次接触韩国大众文化是在什么时候?
① 少年时期 ② 大学时期 ③ 现在, 在韩国留学时期
2. 是否经常接触韩国大众文化?
① 几乎每天 ② 经常 ③ 一般 ④ 不经常 ⑤ 几乎不
3. 通过什么方式接车和使用韩国大众文化?(最经常使用的)
① 电视 ② 电脑 ③ CD or MP3 ④ 电影 ⑤ 其他
4. 最喜欢韩国大众文化的哪方面?
① 电视剧 ② 音乐 ③ 电影 ④ 游戏 ⑤ 其他
5. 你是否受到韩国大众文化的影响?
① 非常大的影响 ② 有 ③ 一般 ④ 一点 ⑤ 一点没有

6. 韩国大众文化给你带来的积极影响是什么？
- ① 接触别国的文化时候，能够给你带来异质感
 - ② 能够体会到审美观方面的乐趣
 - ③ 能够更好的理解韩国文化
 - ④ 能够和韩国朋友产生共感，在人际方面有着很大的帮助
7. 韩国大众文化给你带来的消极影响是什么？
- ① 讨厌韩国的大众文化
 - ② 浪费时间
 - ③ 是被动的接受韩国大众文化
 - ④ 给经济造成了负担
8. 你是如何接受韩国大众文化的？
- ① 批评的接受
 - ② 完全接受
 - ③ 区分好坏辩证的接受
 - ④ 采用或者模仿
 - ⑤ 盲目的接受
9. 你认为韩国的大众文化和中国大众文化的不同点是什么？
- ① 融合了其他国家的文化
 - ② 对流行特别的敏感
 - ③ 内容多样化
 - ④ 自由地表达情绪
 - ⑤ 没有不同点
10. 在韩国接受的大众文化与在中国接受的相比有何不同？
- ① 可以按照自己的兴趣选择性接受
 - ② 可以更加快速的到接触到
 - ③ 能够积极的接触
 - ④ 没有不同
11. 在接触韩国大众文化的时候遇到的最大障碍是什么？
- ① 给经济造成了负担
 - ② 并不容易接触到大众媒体

- ③ 由于韩国语能力的不足能容易的理解
- ④ 韩国人的喜好与自身的喜好有着差异性

12. 你认为为了更好的接触韩国大众文化的必要条件是什么?

- ① 举办和外国人共同参与的节目
- ② 提供有关韩国特有的文化资料
- ③ 学校或者其他的教育机构能够给予更多的韩国语教育
- ④ 满足现状

13. 你是通过何种途径釜山留学生的?

- ① 交换学生
- ② 留学中介
- ③ 个人
- ④ 他人的推荐

14. 你如何看待釜山的文化空间?

- ① 壮观的文化空间
- ② 与山水相间的自然环境连为一体的文化空间
- ③ 多种文化空间
- ④ 变化多样的文化空间
- ⑤ 外国文化中的一个文化空间

15. 你认为韩国的大众文化具有何种魅力?

- ① 多种文化共存
- ② 能够产生共鸣
- ③ 有着许多有趣的地方
- ④ 愿意模仿, 风格非常好
- ⑤ 具有新一代的感觉

16. 你归国后是否还会继续接触韩国文化吗?

- ① 是
- ② 不是

17. 归国后如果有机会介绍韩国的大众文化, 你会介绍哪个方面?

- ① 与在中国时相比, 接触了更多的东西
- ② 通过文化方面的接触, 更多的了解了韩国

- ③ 丰富了视野
- ④ 韩国的大众文化和中国的非常相似
- ⑤ 希望可以继续互相交流

* 以下问题是关于答卷人的个人资料问题。

1. 您的性别?

- ① 男
- ② 女

2. 您在釜山的居住时间?

- ① 1年
- ② 1年~2年
- ③ 2年~3年
- ④ 3年~4年
- ⑤ 4年以上

3. 您在釜山的职业是什么?

- ① 语言研修生
- ② 大学生
- ③ 研究生
- ④ 博士生

4. 您平均每个月的生活费大概是多少? (韩币)

- ① 不足30万
- ② 30万左右
- ③ 50万左右
- ④ 50万以上